

인권정보자료실  
CPe1.16

2001년

한국전쟁전후

#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2001

인권정보자료실  
CPe1.1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 보고서는 2001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ww.genocide.or.kr](http://www.genocide.or.kr)



2001년

한국전쟁전후

#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 02-736-5158    전송 : 02-736-5158

[www.genocide.or.kr](http://www.genocide.or.kr)

[genocide2002@hanmail.net](mailto:genocide2002@hanmail.net)

차 례

I. 인천·경기도

|           |       |    |
|-----------|-------|----|
| 1. 고양 금정굴 | ----- | 3  |
| 2. 강화지역   | ----- | 10 |

II. 대전·충청도

|             |       |    |
|-------------|-------|----|
| 3. 대전 산내학살  | ----- | 13 |
| 4. 옥천지역     | ----- | 17 |
| 5. 공주형무소 학살 | ----- | 23 |

III. 광주·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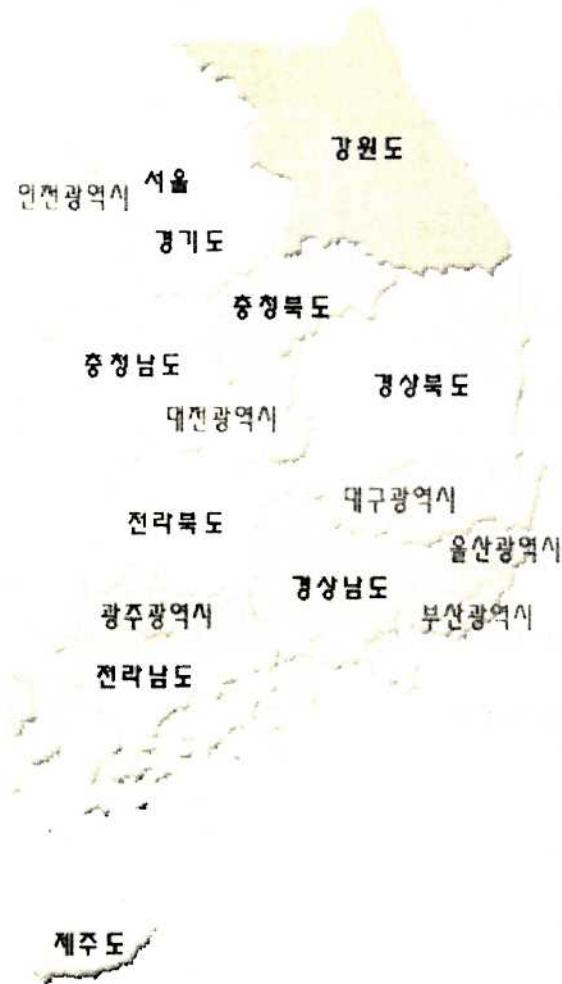
|                 |       |     |
|-----------------|-------|-----|
| 6. 이리역(익산역)오폭사건 | ----- | 25  |
| 7. 여순사건         | ----- | 33  |
| 8. 광주전남 기타지역    | ----- | 57  |
| 9. 화순지역         | ----- | 61  |
| 10. 함평지역        | ----- | 90  |
| 11. 나주지역        | ----- | 146 |

IV. 경상북도

|               |       |     |
|---------------|-------|-----|
| 12. 문경 석달마을   | ----- | 149 |
| 13. 경산 폐코발트광산 | ----- | 179 |
| 14. 청도 보도연맹원  | ----- | 196 |
| 15. 포항지역      | ----- | 198 |

V. 경상남도

|                 |       |     |
|-----------------|-------|-----|
| 16. 거제지역        | ----- | 201 |
| 17. 통영지역        | ----- | 226 |
| 18. 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 | 234 |
| 19. 지리산 외공마을    | ----- | 240 |



# I. 인천·경기도

## 1. 고양 금정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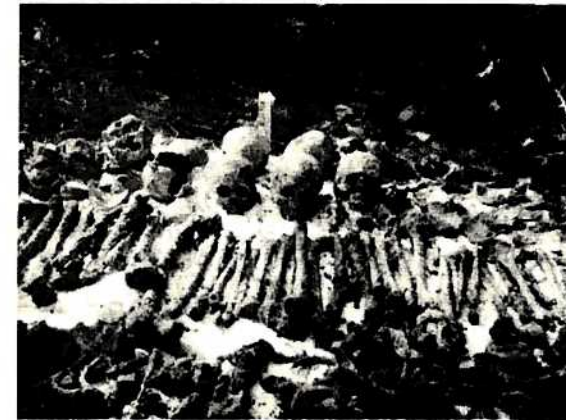
### 1.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일시 : 1950년 10월 ~ 11월(약 1개월간)  
 장소 :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기슭에 소재한 금정굴(일제시대 때 건설된 수직폐광굴)

### 2. 가해자

태극단, 경찰, 우익청년단(치안대)

### 3. 피학살자 현황



당시 고양군에서 사망한 피학살자 수는 약 1000명 이상이 된다며 95년 9월 25일 ~10월 3일까지 금정굴에서 발굴한 유골은 현재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인 이윤성 교수의 감정에 따라 중간발표에 의하면 160구 이상이 될 것이며, 그 중 여자의 유골이 10명이 되고 10대의 어린 유골과 약자 및 연령은 정확한

감정이 끝나야 밝혀질 것이며 미발굴된 유골도 발굴하여 감정을 하여야만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망자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피학살자들은 주로 인민치아에서 강제로 끌려가 부역을 한 혐의자로서 죄 없는 그 가족이거나 민간인이었다.



#### 4. 학살 유형

1950년 9.28일 수복 후 임의로 조직된 치안대, 태극단, 경찰이 부역을 한 부역 혐의자는 피신하여 없고 죄가 없어 집에 있던 그 가족과 소극적인 부역한자 및 개인감정으로 당시 경찰서장인 이무영과 치안대장 이경하의 주도와 지시하에 적법절차 없이 경찰서 창고에 가두고 모진 고문과 식사도 제공치 않고 금정굴에서 학살한 사건임.

#### 5. 사례 및 증언

#####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한 내용

###### ● 김규용(당시 치안대원)

1950년 9.28 수복후 치안대원인 김규용씨가 금정굴에 올라와 학살당시 현장에서 행동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람을 한번 죽이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죽이고 덮고 여러 켠로 덮었다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좌익자인 가를 묻자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사상이라고 할까?”라며 죽은 사람들이 양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95년 9월 25일 금정굴 위령제에 참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현장에서 설명하였다.

###### ● 김인성(당시 태극단원)

1950년 9.28 수복후 금정굴에서 무차별 처단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산에서 내려와 태극단에서 나왔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 치안대, 태극단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 정OO(당시 고양경찰서 유치장서 근무)

근무 중 서장인 이무영씨가 많은 양민을 학살한다는 이유로 서울 군경합동 수사본부에서 체포하려고 고양서에 왔으며 “나는 우리어머니와 처, 자식도 빨갱이한테 죽었다 나보다 더 원수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난 이렇게 (학살)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서장 나와라”하며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일(학살)이 더 커졌는지 모르지라고 증언하였고 그 후 1950년 11월 8일부터 이무영서장은 면직됨, 금정굴 현장에서 증언하였다.

###### ● 김경열(당시 태극단 감찰부장)

MBC PD 수첩팀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태극단이 당시에 양민학살을 하였다는데 사실이라고 묻자, 약 400명을 죽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빨갱이집안 일 줄 알고 시집왔겠느냐, 시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다. 어디서 학살을 했냐고 묻자 황매동 갯벌(지금의 파주 출판단지 부지)에서 학살했다고 하였으며 왜 그 강가에서 학살했느냐고 하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다 처리하느냐, 강갯벌에서 학살하면 강물이 들어와 다 떠내려갈 것이 아니냐고 당시의 학살 사건에 대해 시인 증언하였다.

###### ● 정종만(탄현동 주민)

정종만씨는 당시 숯고개 마을(지금의 탄현동)에서 살고 있었으며 경의선 철로가 가까이 있어 당시에 치안대 경찰 등이 약30여명 이상을 철길로 끌고 금정굴로 올라가 10여명씩 싸서 구덩이(금정굴)에 넣었다. 집 앞에 보이는 철길로 수십명씩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 ● 김상문(당시 고양경찰서 보안계장)

SBS 기자인 윤춘호씨와 취재 인터뷰에서 40 ~ 50여명을 죽인 것은 사실이며 현장목격자도 찾았다고 증언하였고 김상문 보안계장은 고양경찰서에서 정보, 보안등의 업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으며 93년 9월 당시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진상규명위원장 김양원씨의 방문에 금정굴 사건을 파헤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 ● 송금연(당시 숯고개 마을 거주)

당시 숯고개 마을(현 탄현동)에 살았으며 오빠가 일제 때 군청 징용계에 근무하던 중 친구 가족을 징용 보낸 사실로 인해 인민군들이 연행하여 함미쪽(현덕이동)으로 끌고 가던 중 도망하려다 총에 맞고 인가로 기여 내려와 죽었으며 후일 장례식을 하려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장례행렬을 치안대와 경찰들이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으며 그 중에는 제대로 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새끼줄로 묶어 금정굴로 끌고 올라갔으며 몇 분 후 총소리가 여러분 났음,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다.

오빠 송한영씨는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유공자로 태극단에 등록되었으며 연금도 수령하였다고 한다.

###### ● 황두섭(당시 숯고개 마을 거주)

당시 숯고개 마을, 지금의 금정굴 아랫마을에서 살았으며 9.28 수복이 되면서



치안대와 경찰이 매일(1950년 10월) 약 1개월간 수십 명씩 집 앞으로 끌고가는 것을 보았고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자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며 증언을 하였다.

## 6. 유족회의 관련활동

### 1)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및 청원서

- 1993. 9. 20 청원서 제출(대통령, 내무부 장관, 고양시장, 고양시 의장, 고양경찰서장)
- 1993. 9. 22 강수립 국회의원 외 8인 고문 위촉함, 국회 청원서 제출
- 1995. 10. 2 각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를 발송함  
청와대, 내무부 장관, 국회의장, 경찰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의회의장, 고양시장, 고양시 의회의장, 시의원,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고양시 국회의원 이택석, 고양경찰서장, 각 정당 대표, 의원 등
- 1997. 4. 13 경기도 의회내 금정굴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청한 청원서 제출함(소개의원 이상락, 이찬혁, 정소양)
- 1998. 8. 19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서를 대통령 이하, 각 부처에 발송함
- 1998. 11. 28 청원서가,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 외 27명 서명 날인하여 국회 사무처내 정식으로 접수, 인수증을 수령함

### 2) 피해보고서 책자 발행

- 1994. 10. 15 제1차 자료집 발간, 저자 김양원, 편집 나진택
- 1998. 12. 31 이한공(신도시 거주)에 의해 최초로 금정굴을 소재로한 중편소설 "세기말 빌딩 오르기" 탈고함
- 1999. 3. 22 제2차 고양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발간

### 3) 언론 보도일지나 텔레비전에 방영된 프로그램 등

- 1993. 9. 10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고양시민 뉴스에 최초 보도됨  
당시 백금순 기자 금정굴 사건보도 이유로 해직됨, 고양신문 이영아 기자도 같은 이유로 해직됨
- 1993. 9. 13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일간지 최초 사회면 특종 보도됨(중앙일보)
- 1993. 10. 27, 1993. 11. 4 내일신문 제4, 5호에 금정굴 양민학살이 상세히 보도 됨(홍장기 기자)

- 1993. 11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가해자 압력으로 방영 취소됨
- 1994. 10. 15 제1차 자료집 발간, 저자 김양원, 편집인 나진택(진상규명 부위원장) 영입
- 1995. 9. 24 제3차 합동위령제 및 유해 발굴 시작함(협찬 MBC PD 수첩 최승호기자, 한겨레 신문사 강남규, 강세준 기자, 21세기 신문사 홍석철 사장, 강희정 기자)
- 1995. 9. 29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MBC 등 각 매스컴에 보도됨.
- 1995. 10. 3 MBC PD 수첩이 금정굴의 참상을 연속 2회(1, 2부) 방영함, PD 최승호 기자
- 1995. 10. 4 진상규명 위원장 김양원씨가 CBS 기독교 시사 프로그램에서 금정굴 양민학살에 대해 대담함, 연일 매스컴에 보도됨(진행자 정범구)
- 1995. 10. 13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골 20여구 모시고 가서 항변함, 한겨레신문 등에서 사진 보도됨.

###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활동

- 1993. 9. 15 고양시 의회 의장 정종득 의장에게 탄원서 제출하였으나 접수 거부 당함
- 1997. 4. 13 경기도 의회에 금정굴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청원서 제출함(소개의원 이상락, 이찬혁, 정소양)  
청원서가 보사환경위원회 → 내무위원회 → 의장 →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미루어짐  
7-9월 사이 유족회가 도의회를 방문하여 각 당 대표 및 총무 임원진을 수 차례 방문하여 금정굴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협 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 1997. 10. 22 경기도 의회 방문, 본회의에서 금정굴 양민학살 청원심사 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한기태 국민회의(운영회 간사)의 설명으로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으나 신한국당 신우근 고양시 의원이 애매모호한 반박성명에 의해 좌절됨
- 1997. 11. 20 경기도 의회 청원심사를 통하여 금정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신한국당 의원에 의해 부결됨
- 1998. 10. 14 청원접수, 이상락, 나진택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청원이 경기도 의회에 접수
- 1998. 11. 13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의회의원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
- 1998. 12. 24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보고, 청원심사를 담당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다양함 등을 사유로 청원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에게 보고

· 1999. 2. 1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이상락, 나진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위원수 10인(국민회의 6, 한나라당 3, 비교섭1)으로 구성할 것을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 1999. 3. 23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제135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기영(국민회의)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상락(국민회의), 나진택(한나라당)의원을 간사로 선임

· 1999. 7. 2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참석인원: 34명(소속위원 10명, 피해자, 유가족 및 시민단체24명)

장 소: 금정굴 현장

· 1999. 12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고양시 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 및 건의서 발간

· 1999. 12. 29 경기도 사회복지과에 경기도의회 특위위원회에서 보고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양시에 공문을 발송,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주민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은 후 의견 수렴결과 보고를 요청, 고양시에서는 유족회, 태극단동지회, 보훈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하였으나 태극단동지회와 보훈단체에서 위령사업에 대해 반대하여, 고양시장은 반대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처리함으로써 위령 사업이 무산됨

<활동일자별 요약>

|              |   |
|--------------|---|
| 1998. 12. 22 |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금정굴 진상규명 보고서 제작작업 시작함(실무 고양청년회)  |
| 1998. 12. 28 | 경기도 의회의원 나진택 의원 외 6인의 금정굴 현장답사 있었음, 유족 다수 참석함(안내 및 설명 김양원)  |
| 1998. 12. 31 | 이찬공씨(신도시 거주)에 의해 최초로 금정굴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 「세기말 빌딩 오르기」 탈고됨   |
| 1999. 2      | 이무영 서장의 고양경찰서 근무기록이 유선호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경찰청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7년만에 공식 인정됨   |
| 1999. 2. 10  |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경기도 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됨. 앞으로 10명의 특위위원이 2개월간 진상조사하게 됨  |
| 1999. 2. 12  | 2차 발굴, 유골감정 결과가 신문 보도됨(사망 153명, 여성 10%, 10대 후반의 뼈도 있음)  |
| 1999. 3. 22  | 제2차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자료집 발간(실무 고양청년회 및 유족회)   |
| 1999. 12     |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서 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   |
| 1999. 12. 29 | 경기도 특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서 및 건의서를 제출,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고양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 발송,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지사협조 요청                            |
| 2000. 3. 17  | 고양시에서는 도에서 요청한 위령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보훈단체와 태극단에서 이를 반대(찬성5, 반대2)하여 고양시장이 무책임하게 위령사업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령사업을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됨 |



## 2. 강화지역

### 1. 학살 사건이 발생한 시기, 일시

시기 : 1951년 1월 6,7,8일(3일간)  
 장소 : 강화 구대교옆 갑곶 나루터와 옥림리 옥계갯벌

### 2. 가해자

우익청년단체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

생존자 : 최중석(특공대장,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거주), 김동환(대원, 인천시 강화군 관청리 거주), 박창성(대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거주)

### 3. 피학살자 현황

구00 77세(여), 김덕임 39세(여), 서화석 1세(남), 오천용(남), 부인(여), 며느리들(여), 최진국(남), 부인(여), 윤기항(남)등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약 300 여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살 장소가 갯벌이라 유족과 연고자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 4. 학살 유형

강화 우익청년단(향토방위특공단)에 의한 인근 주민 학살



### 5. 당시 상황 및 증언

1950년 9·28 수복 후 청년 반공단체인 치안대원과 대한정의단 단원들은 부역한 사람이나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끌고가고문하고 취조하였다. 그리고 1951년 1·4 후퇴 당시 그들중에 약 22명이 12월 12일, 18일에 향토방위 특공대를 결성하였다. 특공대는 비밀리에 강화 신문지에 있는 양조

장 자리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면서 남아있는 부역자나 월북한 가족들을 연행해 갔다. 서영선(강화희생자유족회장)의 집에도 12월 27일경이라 생각되는데 저녁에 특공대 기동대들이 3명이 복면을 하고 들어와 이곳 저곳을 뒤지다가 애기를 업고 마루에 서 있는 어머니를 끌고 갔다. 남녀(부녀자15)모두 60명 가량을 양조장에 가두었다가 며칠 후에 관청리 옛 곡물 검사소 건물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때는 간판을 걸고 일하다가 경찰이 1.2일 후퇴함에 따라 경찰서를 장악하고 유치자아에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10여명씩 저녁에 갑곶 나루터와 옥계 갯벌에서 바다를 향해 세워놓고 뒤에서 총으로 학살하였다. 그 후 1월에서 2월말에 걸쳐 각 곳 해안에서 약 300명을 웃도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 먼저 학살한 60명은 노인, 부녀자, 갓난아기였고 그 후의 학살은 부역을 하고 피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강화 주민들이었다. 당시 서영선의 아버지는 강화 교육청의 장학사였고 어머니는 개성 호수돈 여고를 졸업하고 의학공부까지 하신 인텔리였다. 강화는 휴전선이 가깝고 갑자기 발발한 6.25로 인해 피난갈 틈도 없었고 서영선은 12살이던 국민학교 5학년 때 공부하던 학교에서 전쟁을 맞았다.

### 6. 유족회 활동 내용

- 1993. 10. 03 - 의정부 장암아파트 최중석 방문. 민간인학살에 대해 물었으나 전면 부인하고 향토 사수만 했고 사람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 1993. 10. 04 강화 박창성은 못 만나고, 강화 문화원에서 특공대 역할관련 책자 보았음.
- 1993. 10. 05 강화읍 관청리 김동환(가해자)을 만나서 자기들이 활동한 모든 일과 가족들을 죽이고 행동한 것을 다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니도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 1995. 08. 20 강화읍 관청리 곡물검사소 옆에 사는 임귀술(90세)할머니가 증언함.
- 1995. 08. 21 임귀술 할머니를 만나고 김동환도 만나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었다.
- 1995. 10. 16 MBC PD수첩의 PD와 만남.
- 1995. 10. 17 PD일행과 강화 갯벌에서 인터뷰와 촬영을 했으나 방영은 무산됨
- 1996. 03. 18 옥계, 갑곶 돛대 현장답사
- 1996. 12. 09 박용중(당시 특공대 감찰 부장)을 만났으나 식물인간인 상태여서 면담무산.



- 1996. 강화 천주교회 신부님께 유족 찾기에 관련해 협조 요청.
- 1999. 01. 22 『말』지 기자와 최중석 방문했으나 모든 것을 부인해서 보도 무산.
- 1999. 05. 21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남.
- 1999. 06. 02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나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 1999. 07. 『말』지 7월호에 처음으로 학살내용 보도.
- 1999. 07. 07 강화 신부님과 2000년 1월 6일날 합동 위령 미사하기도 함의.
- 1999. 12. 19 학살현장 유족들과 함께 답사.
- 2000. 01. 04 10시 합동 위령 미사 준비 완료.
- 2000. 01. 06 10시 위령미사 집전
- 2000. 03. 01 유족회 총무와 최중석 만남.

서영선의 증언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 학살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최중석은 그때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특공대 일을 하면서 매일 일지를 썼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실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동환은 서류를 태워 버렸다고도 하고 누구에게 주었다고도 한다. 두 사람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최중석은 그 후 민간인학살과 관련하여 대구 교도소에서 3개월을 복역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청방(청년 방위대)의 지원도 받았고 군부대들과 경찰에서도 협조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 완강히 부인만 하던 그가 위령제 신문 보도와 『말』지 기사를 보고 살아 있는 가해자들과 상의해서 말을 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만나자고 하였다.

- 2000. 01. 06 CBC 생방송전화 대담. 그 당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전화로 약 40여분 방송함.

## II. 대전 · 충청도



### 3. 대전 산내학살

#### 1. 학살이 발생한 시기 및 장소

일시 : 1950년 7월 대전형무소.  
장소 : 대전 산내 형무소

#### 2. 가해자 및 당시 현황

- 1950. 6. 27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 대전으로 피난
- 1950. 7. 1 이대통령 부산 피난. 대전형무소 수감자 탈옥시도. 임시 국무회의(충남지사 공판) 미국 24사단 대전도착
- 7. 2-10 대전형무소 수감 좌익인사 및 군 예치수 처형된 것으로 추정.
- 7. 8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대전에서)
- 7.11-14 보도연맹자 등 좌익계 인사 골령골서 계속 처형(인원 모름)된 것으로 추정.
- 7. 13 작전지휘권 미국으로 이양
- 7. 14 대전형무소 폐쇄, 형무소 특경대원 철수.
- 7. 20 북한군 대전장악
- 9. 28 전후 유엔군 서울 수복, 대전 형무소 우익 1천 3백여명 집단처형.

7월 8일 아침, 형무소 직원들이 정치범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냈다. 가석방, 가출옥시킨다며 불러내서는 곧바로 헌병대의 손에 넘겼다. 당시 도 경찰국 사찰주임으로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의 총살집행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변홍명(가명)씨가 지난 92년 '말'지와 인터뷰에서의 증언.

"그들은 형무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벌써 넋이 빠져 있었어요. 눈을 가린 채 전깃줄로 굴비쥬듯 몇 사람씩 묶어 트럭에다 2중, 3중으로 실었습니다. ...나중엔 시간이 없어 트럭 적재함에 쭈그러뜨리고 앉히면 위에 또 엮고 차곡차곡 싣고 왔습니다. 꼭 콩나물 시루같이 죄수들을 싣고 총살 집행장으



로 끌고 온 거지요”

### 3. 학살책임자는 심증위와 정경감

각 감방은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관련자 등 정치범들로 포화상태였다. 일반수를 합쳐 정원 1천2백명 시설에 3배가 많은 3~4천여명이 들어차 있었다. 사상범들은 약 2천여명으로 4.3항쟁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남로당원, 전쟁발발 직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광복이후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원 등이었다.

1950년 7월 6일과 7일. 살기 먼 군 헌병대가 형무소를 에워싼 가운데 교도관들은 명적계(인명부)를 보고 정신없이 재소자들의 성향 분류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류는 석방(일반수)과 총살(사상범)로 나뉘었다. 이순일(92·당시 대전형무소장 직무대리)씨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석간수로서 몇 차례 법원장과 검사장을 찾아갔으나 재소자 처리지침과 분류 기준을 하달받지 못했다. 분류작업은 백소령이 신분장을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형무소가 텅 빌 때까지 꼬박 3일간 정치범들을 실어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이다.

“(골령골에) 도착해서 내리라고 하면 앞이 안보이니까 못 내렸어요.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끌어내리면 돼지새끼 구르듯 굴러 떨어졌죠” 변홍명씨의 증언은 이어진다. 변씨에 따르면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은 8일 아침부터 10일 저녁까지 3일간 계속됐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어 갔는데 2~3일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50년 당시 대전형무소를 지켰던 직원들로 구성된 7.1동지회원(10여명)들의 한결같은 얘기여서 현재까지 증언으로 신빙성이 가장 높다.

학살 기간은 사흘이었나. 열흘이었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양측의 증언이 엇갈린다. 형무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사상범 처형을 3일간 했다고 증언한 반면 현장 총살집행책임자였던 홍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살)집행은 10여일 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의 얘기도 들어보자. 임선기(77, 산내 낭월동)씨. 토박이인 임씨는 “아침때부터 해거름까지 총소리가 광광 났는데 약 일주일간 계속됐다. 막판 이를 동안은 한 밤중에도 총소리가 들렸다”고 당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송민용(66, 동구 구도동)씨도 “당시 일주일 넘게 도라꾸(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골령이(골령골)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규희(62, 당시 국민학교 5학년·대전 거주)씨는 “적어도 열흘쯤 재소자를 옮기는 도라꾸 행렬이 계속됐다” 주장한다.

이처럼 형무소 직원들과 현장 목격자들의 주장이 다른 것은 왜 일까. 변홍명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이 끝난 뒤 3일 동안 대전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온 5백 여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처형했다”

즉 형무소 사상범외에도 군·경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일~16일 막판까지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골령골에서의 처형이 계속됐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4. 집단학살 지시한 ‘최상부층은 과연누구인가?’

그렇다면 백주 대낮에 자행된 이같은 잔혹한 살인행위를 지시한 학살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7월 1일 대전교도소 소요사건에 대해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등이 ‘민족의 증언’(중앙일보사 간·1983)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떠난 뒤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백성옥 내무부장관 등 몇몇 각료와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 대령은 “문제는 대전형무소에 있는 2천여 명의 적색수감자들”이라며 “이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정치범에 대한 처형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다른 한편 이준영씨의 증언에 따라 당시 군대에서 요청한 정치범의 신병인도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미국의 역할도 여전히 의문이다. 92년 2월 말지에 증언한 당시 경찰관이었던 변홍명씨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는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씨의 진술은 뒤늦게 해제된 미국의 사진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사진 속에는 학살 현장을 태연히 지켜보는 미군고급장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 5. 관련 활동

#### 1)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경과보고

- 92년 2월 「월간 말」통해 최초보도
- 95년 4월 -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내 자체 진상조사 착수, - 신공안정국내에서 탄압 빌미우려 공론화하지 않기로 함
- 99년 10월말 대전참여자치연대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 자체 조사 착수

진상 조사반 : 김용우(보문감리교회 목사), 정현태(전 대전시민포럼 간사), 복진국(대전참여자치연대 부장), 강성복(향토사학가), 심규상(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강창일(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전 4.3문제 연구소장), 이규희(당시 현장 목격자)

- 99년 12월말 제주 이도영 박사 통해 미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 발견, 대전형무소 1800명 집단처형 미정보관 보고서. 당시 학살 현장 사진 발견, 제민일보 통해 첫 보도



- 2000년 1월초 한국일보 후속보도 후 전국 여론화
- 1월 진상조사반 현장증언 마무리  
(당시 산내면 낭월동,기성동 등 주민 증언과 형무소 관계자 증언채록)
- 2월 -진상조사반 증언채록 내용 「월간 말」 2차 후속보도  
-제주4.3문제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여순사건관련), 대전참여연대 3  
단체 공동피해신고센터 개설.  
- 신고센터 개설 후 대전 30여건 피해사례 접수, 자료 관리중  
- 제주에서 4.3관련자 300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자료 발견  
- 여수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16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증언통  
해 확인.  
- 산내학살 현장부근 희생자 유골 다량 매장돼 있음을 확인(굴삭기 이  
용)
- 3월 - 대전교도소,도경찰청,청와대,국방부,경찰청,대전시 등 행정정보공개 신청  
으나 '보유자료 없음' 통보받음.  
- 제주, 여수, 대전 3단체 연석회의 통해 '대전형무소학살사건 범국민대  
책기구' 결성 추진 결의  
- 총선이후 4월내 전국 회의 개최키로  
- 대전시 소유 지적도 통해 산내학살 현장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관통  
예정 확인  
- 현장보존 당면 문제로 부상
- 4월 19일 유가족 준비모임 및 결성회의  
27일 실무반 준비모임
- 5월 2일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결성회의  
17일 2차 유족모임(산내 현장방문,4.3유가족간담회진행)  
19일 국제인권학술심포지움 참석  
26일 전국유가족모임 결성준비회의
- 6월 9일 전국유가족모임  
14일 3차 유가족모임(산내위령제 기획안)  
4.3제주 유가족간담회
- 7월 8일 갈등과 단절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 4. 옥천지역

### 1. 학살시기 및 장소

시기 : 1950. 7. 14

장소 : 동이면 평산리 들미 마을, 청산면 미군기 폭격사건

### 2. 가해자 및 당시 상황

국군, 경찰, 미군

### 3. 피해자

보도연맹원, 민간인

### 4. 학살 유형

#### 1) 보도연맹

지난 97년 여름 수해로 인해 동이면 평산리 들미마을에서 처형당한 보도연맹원들의 유골이 일부 드러났다. 그래서 인근에 살고 있는 당시 처형 목격자인 이종학씨에 의해 유골이 발굴돼 거두어졌고 군에서도 이들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군서면 월전리 말무덤재에 있는 군 공원묘지 한켠에 합동장례를 치러줬다.

#### 2) 청산면내 미군폭격

청산 노루목재에서 미군 비행기에 의한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민들이 미군들에 의해 학살당한 영동 노근리 사건(이 사건은 이미 영동의 지역신문인 영동신문이 보도했고 MBC, 한겨레신문, 말지 등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이 세계 주요 뉴스로 보도된 후 청산면 대성리 광재춘 이장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

청산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전해진 사건의 전모는 심지어는 주민들이 인민군을 위해 부역을 하다 폭격을 맞았다고도 왜곡되었다. 그러나 부역을 나간 사람들은 한창 교전 중에 포탄을 나르다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었다. 보국대라는 이름의 부역을 하다가 전쟁통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고만 알려져 왔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일어났던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묻혀 있었던 것은 미군에 의한 오폭이



라는 점,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무엇하겠느냐는 패배주의적인 생각 등이 합쳐진 결과였다.

살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청산이 인민군 치하에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무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상황. 피난민과 뒤섞여 있었고 쉬는 동안 맛있는 담배 한 모금 빨고 있다가 당했던 이가 허다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도 포탄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상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 중 3~4명의 증언자가 아직 살아 있고 현장을 푹 푹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 5. 증언 및 사례

### 1) 보도연맹학살 사건

#### ● 유범수씨

: 보도연맹에 연루돼 끌려갔다가 처형 하루 전에 경찰서에서 빠져 나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례

-아들 유재용씨(육천군 청산면 지전리 043-732-8142)

#### ● 최종수, 백정자 부부

: 육천군 청성면에 살았던 장인 백남춘씨가 보도연맹에 연루돼 처형당했음. 장인이 처형당한 곳을 수 십년 동안 찾지 못하다가 육천신문에 제보해 처형장소만 알아냈다. 특히 최종수씨는 청산면에 살고 있는 박진수(043-732-8454, 외삼촌이 보도연맹으로 희생)씨와 함께 올해 보도연맹에 희생된 가족들을 찾아 가족모임을 만들려고 했으나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 백씨의 아버지 백남춘씨는 백씨가 여섯살 나던 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비록 여섯 살이지만 그 이후 느꼈던 아버지를 잃은 한으로 50년을 살아왔다. 어려서야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백씨에게는 일생 씻을 수 없는 한이 되어 가슴에 묻어졌다.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대략 27세 전후. 백씨는 여섯 살이었고 백씨 아래로 태어난 여동생 남순(51·청주시 거주)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끝내 볼 수가 없었다. 유복자였던 셈이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좀 배웠다고 돌아가셨다고들 하는데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대청마루 기둥을 붙들고 남춘아! 남춘아! 하면서 통곡을 해요. 여섯살 때였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나중에 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기였지만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통곡을 했던 날은 아버지가 어딘가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던 날이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이러저리 소문을 들어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리고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당했다는 곳을 찾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에서 몇 사람이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현장을 다녀온 할아버지의 기억을 더듬는 사람들의 말이 백씨의 할아버지가 시신이라도 찾는다고 열심히 찾고 있던 도중 어디서 날아왔는지 비행기가 사격을 가해 신발까지 잃어버리고 맨 발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간 곳을 백씨는 여지껏 몰랐다. 어디에서 돌아가셨는 지라도 알아야 속이 좀 풀릴 것인데 그것마저 모르는 백씨는 더욱 답답한 세월을 보내왔다.

"당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을 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자기 돈 써가면서 마을일을 보던 이장이었다고요. 집에서 농사만 지었지 별도의 가외활동은 없었다고들 해요" 백씨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벌써 눈시울이 별것게 된다. 단 여섯 해밖에 알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백씨로서는 사무친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백씨의 한은 남편인 최종수(60)씨에 의해 알려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요, 잠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많습니다. 아버지 생각 때문에. 특히 1년 중 이맘때면 더욱 심해져요. 장인어른 제사가 있는 날이 다가오면 더욱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돌아다니며 장인인 백남춘씨가 세상을 떠난 곳이 어딘가도 수소문하는 등 나름대로는 아내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영동 노근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세상에 알려졌다. 아내의 당숙이 전화를 해왔다. 혹시 영동 노근리 사건이 보도연맹원을 처형했던 장소 아니냐는 말이었다. 사안 자체가 틀렸지만 아내 백씨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아마도 노근리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내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한 까닭이었던 듯하다. 남편 최씨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같은 청성면 장연리에 살던 고 유재일씨로부터 들은 장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청성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다고 밝힌다. 고 유재일씨의 장인에 대한 평가는 보도연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으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백정자씨의 아버지 백남춘(생존했다면 77세)씨는 청성면 거포리에 살았다. 일제 강점기 때 대전 공업전수학교를 나올 정도로 인근에서는 엘리트로 꼽혔고 해방되면서는 마을의 이장을 맡아 일을 보는 등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백남춘씨가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도장 하나 잘못 찍어준 죄 밖에는



없다는 게 대다수 백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백씨와는 세 살 차이로 마을에서 같이 커온 사촌 백남기(74·청성면 거포리)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마음이 약해 도장을 찍어준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특히 백남기씨는 사촌인 남춘씨가 어디를 나다니지도 않았으며 마을의 이장을 보며 인심을 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장을 보면서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마을 일을 볼 정도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백남기씨는 특히 당시 보도연맹원으로 가입하라며 사람들이 도장을 받으러 다녔으며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인민군이 들어와 죽일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사촌인 박남춘씨는 그 사람들의 청에 못이겨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기억했다. 또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다고 털어놓았다. 백남기씨는 또 당시 도장을 주도적으로 받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전쟁이 발발한 후 미리 몸을 피하거나 자진해 북한군을 찾아가는 등으로 인해 보도연맹원이라고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예는 많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죄없는 농민과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증언의 하나이기도 하다. 백남춘씨가 자신의 돈을 써가며 마을 일을 볼 정도로 열심히었던 것은 당시 백씨의 집이 비교적 넉넉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살림살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그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신을 부르러 새벽에 집으로 온 경찰과 함께 잠옷 바람에 나섰다. 주위에서는 백남춘씨가 집을 나서서 경찰을 따라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오라'며 달아날 시간을 주어도 고지식하게 따라갔단다. 심지어는 '잠옷 바람에 담배가 없을 테니 담배나 사오라'며 경찰이 돈을 주면서까지 달아날 시간을 주려 했으나 '담배는 챙겨왔다'고 끌고 가는 경찰에게 담배가 없으면 피우라며 담배까지 권하더라는 말이 뒤에 소문으로 남았다.

그만큼 죄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고지식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당시 경찰을 했던 같은 마을 사람인 장동환(76·청성면 거포리 거주)씨의 증언은 더욱 확실하다.

"그 사람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위였지만 학교는 동창이었어요. 학교 때부터 호인이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마을에서 컸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도장 한 번 찍어주었다고 데려다 죽였던 현실이었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그런 억울한 죽음은 없었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전쟁 중에 좌우로 나뉘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실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살리지 못했던 장씨는 이후 백씨의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나 당시 계엄령 상황에서 헌병대가 주관하고 나서 경찰로서는 한

계가 있었다는 말을 남긴다. 어찌되었든 백남춘씨는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날짜에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 이들 가족들은 제사 날짜를 점쟁이에게 택일해 달라고 했고 그 날이 음력으로 6월13일이다.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정병선(69)씨 등은 "1950년 전쟁이 터진 직후인 7월 초경 여러 날에 걸쳐 옥천군 일대 보도연맹 가입자로 보이는 주민 수 백여명이 끌려와 총살됐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이로 인해 군서면에서만 1명이 죽었고 인근 동일면 세산리 등 옥천군 일대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언에 의하면, 첫 학살은 군서면 월전리 마을 어귀 앞인 말무덤재에서 있었는데 경찰이 사람들을 철사줄로 묶어 트럭에 싣고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 세워놓고 총살시킨 후 겹겹히 포개 매장했다. 구덩이 크기가 가로, 세로 5m 정도여서 이곳에서 최소 100여명 이상이 숨졌을 것이라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두 번째 학살지는 이 마을에서 금산방향으로 500여m 아래 하천변(그린파크 뒤) 일명 용머리 바위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증언자들은 가로, 세로 2-3m크기의 구덩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세 번째 학살지는 2학살지로부터 금산방향으로 다시 5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증언자들은 당시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무덤 규모는 두 번째 학살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인근마을에서 만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박 아무개 할머니(78)는 "가까운 친정 일가가 이곳에서 희생됐다"며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보도연맹 가입자로 알고 있으며 대략 5백여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아무개 할머니는 희생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증언을 꺼렸다.

## 2) 청산면 미군기 폭격사건

● 이은태

: 1950년 당시 인민군이 청산면에서 물러간 후 국군과 경찰을 위해 쓸 장작더미를 가져오기 위해 부역을 나갔다가 청산면 교평리 노루목재라는 고개에서 미군 비행기로부터 폭격을 받은 당사자. 현재 부상을 입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 이기남

: 위와 같은 날 이기남씨의 남편도 부역을 나갔다가 청산면 소재지 시장터에서 폭격을 맞아 숨졌다.

● 김홍선

: 역시 청산면 미군기 폭격사건의 생존자. 청산면 시장터에서 국군을 위해 밥을



지고 나가는 부역을 나갔다가 장터를 덮치는 미군 비행기에 의해 폭격을 받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 6. 관련자료

### 1) 해방일보, '1950년 7월 9일 13일 ...3백명 학살'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옥천군 일원 보도연맹 관련자 수 백여명을 총살했다는 <오마이뉴스> 증언보도를 뒷받침하는 당시 북한 중군기자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최근 발견됐다.

1950년 7월 날짜 미상의 '해방일보'는 '3백여명을 학살'이라는 제목하에 당시 옥천읍에 사는 김순근 씨의 증언을 인용해 "(1950년) 7월 8일 (옥천읍내에) 경찰들이 보도연맹 관련자를 전부 소집하여 2km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니 꼼짝 말고 있으라 떠들고 가더니 다음날 9일 새벽 3시경 30여명의 보도연맹원을 군소면 앞산으로 모두 끌고 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7월 12일(에는) 부락민들을 동원해 두 개의 큰 구덩이를 파고 한 후 다음날 아침 인민들을 태운 트럭 두 대를 그곳으로 끌고 갔다"며 "5명씩 팔을 묶어 차례차례로 구덩이 앞에 세워 놓고서 5연발 총으로 사살해 구덩이에 쏟아 넣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김씨의 증언을 인용, "이렇게 죽은 사람이 3백여명에 이른다"고 적고 있다.

이같은 '조선인민보'의 당시 기사는 지난 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1950년 7월 초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일대 3곳에서 최소 2백여명의 보도연맹관련자들이 경찰에 의해 총살됐다는 증언보도를 뒷받침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밖에도 '조선인민보'는 김순근 씨의 말을 인용, "(1950년)7월 18일 미군과 패잔병들이 군북면 이택리에 들러 피난가라고 하면서 돼지, 소 할 것없이 모조리 잡아먹었고 군북면 자모리에서는 인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40여호나 되는 부락에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 5. 공주형무소 학살

### 1. 학살시기 및 장소

일시 : 1950년 7월 7일

장소 : 공주 금강변 말머리재

### 2. 가해자 및 당시상황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된 뒤 암매장

### 3. 피해자

6.25직후 정치범을 비롯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민간인 남녀노소 800여명

### 4. 학살 유형 및 증언

충남 공주시 왕촌3리 이종선(78) 씨 등 이 마을 주민들은 "6.25전쟁 직후인 7월 초경 군인과 경찰들이 마을 뒤편 산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 후 하루종일 총소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당시 끌려간 사람들이 "공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죄익수들과 보도연맹관련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이규성(64. 李圭聖) 씨는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을 제시한 후 "총소리가 오전 10시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돼 근처 주민들이 하루종일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총살해 구덩이에 파묻은 사람이 15트럭이라는 얘기를 후에 전해 들었다"며 "한 트럭당 50-60명씩 실어 날랐다고 하니 적어도 700-900명쯤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씨가 제시한 암매장지는 이 마을 뒷산 골짜기에 모두 4개의 구덩이며 한 개의 구덩이가 길이 30m, 폭 2.5m 정도이다.

6.25당시 북한의 '해방일보'가 "50년 7월 7일 군경이 공주 금강변 말머리재에서 애국가 및 남녀노소 800여명을 무차별 살육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씨는 또 "학살이 있는 후 전답을 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이곳을 자주 지나 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송장 썩는 역한 냄새가 10년 가까이 골짜기에 진동을 해 코를 막고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살된 2명의 여자는 따로 묻혀 후에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간 것으로 안다"며 "마을사람들이 무섭다며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 유골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근교에 '말머리재'와 유사한 옛 지명인 '말재'가 있고 불과 200-300여m 거리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 당시 북한의 '해방일보'가 보도한 곳과 동일한 학살지인 것으로 보인다.



### Ⅲ. 광주·전라도

#### 6. 이리역(익산역)오폭사건

##### 1. 학살 시기 및 지역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 40분 경 이리시 상공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B29(미군 전폭기) 2대가 출현하여 수회 순회

##### 2. 가해자 및 당시 상황

###### 1) 당시 상황

당시 기관차사무소에서 전시 비상 상황에 대한 교양교육을 받고 휴식을 하고 있던 기관사들은 비행기에 성조기가 그려진 것을 확인한 후 태극기를 흔들며 아군임을 알림. 하지만, 미군기(B29 전폭기) 2대가 이리역(현재 익산역) 기관차사무소, 송학동 민가, 평화동 호남선철길과 변전소(현 터미널 뒤) 사이에 수백발의 폭격을 가함(약 10분 동안). 당시 이리시민들은 전쟁이 터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난가는 사람 하나 없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리시내는 우시장(인화동)이 열려 김제, 황등, 전주, 오산, 군산 방면에서 모여든 민간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으며, 군 소집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철길과 도로를 따라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폭격으로 인하여 이리역구내에서만 84명이 사망(이리역 근무자 54명 이상이 몰살)하였고, 송학동 가옥 50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가옥 폭격시 사망한 사람과 변전소 부근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수백명(300명 이상)이 넘는다.

폭격 당시 북한군은 수원쯤 내려와 있었다.

###### · 1950년 7월 15일

미군기 4-5대가 출현하여 평화동 변전소와 철길 주변에 기관총을 난사하였다. 기관총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 · 1950년 7월 20일

북한군과 이리에서 첫 교전이 있었음



### 3. 피학살자 현황

#### 폭격으로 인한 이리역운전사무소 사망자 명단

| 번호 | 직명   | 직종 | 성명  | 번호 | 직명   | 직종 | 성명  |
|----|------|----|-----|----|------|----|-----|
| 1  | 연료조역 | 기사 | 조상식 | 28 | 기관조사 | 식원 | 송갑주 |
| 2  | 준비폐  | 기원 | 백봉흠 | 29 | "    | "  | 안권호 |
| 3  | "    | "  | 강철희 | 30 | "    | "  | 황권택 |
| 4  | 기관사  | "  | 박종남 | 31 | "    | "  | 이영창 |
| 5  | "    | "  | 김형열 | 32 | "    | "  | 성운용 |
| 6  | "    | "  | 박대겸 | 33 | 탄수폐  | 서기 | 염영창 |
| 7  | "    | "  | 강대남 | 34 | "    | "  | 김을남 |
| 8  | "    | "  | 신현철 | 35 | "    | "  | 백봉룡 |
| 9  | "    | "  | 최점열 | 36 | "    | "  | 이하영 |
| 10 | "    | "  | 심지구 | 37 | "    | "  | 이순옥 |
| 11 | "    | "  | 조시형 | 38 | "    | "  | 이순길 |
| 12 | "    | "  | 조형구 | 39 | 탄수수  | 고원 | 이성열 |
| 13 | "    | "  | 김종열 | 40 | "    | "  | 우연달 |
| 14 | 기관조사 | 고원 | 김재노 | 41 | 수검폐  | 기원 | 강준성 |
| 15 | "    | "  | 김용덕 | 42 | 수차폐  | "  | 이동서 |
| 16 | "    | "  | 서진국 | 43 | 전호폐  | 서기 | 최학동 |
| 17 | "    | "  | 김동섭 | 44 | 창고수  | "  | 박승혁 |
| 18 | "    | "  | 나상근 | 45 | 고내수  | "  | 정길호 |
| 19 | "    | "  | 김형수 | 46 | "    | "  | 정기우 |
| 20 | "    | 기원 | 김한고 | 47 | "    | "  | 윤현중 |
| 21 | "    | "  | 조찬오 | 48 | "    | "  | 김인성 |
| 22 | "    | "  | 강신천 | 49 | "    | "  | 천원욱 |
| 23 | "    | "  | 강도욱 | 50 | "    | "  | 최치목 |
| 24 | "    | "  | 강동영 | 51 | "    | "  | 상상곤 |
| 25 | "    | "  | 김우석 | 52 | "    | "  | 김원팔 |
| 26 | "    | "  | 채규천 | 53 | "    | "  | 안종문 |
| 27 | "    | 식원 | 황태석 | 54 | "    | "  | 이정섭 |

#### 홍익회에서 원호금을 지급한 6.25전쟁당시 이리 운전사무소 사망자 명단

##### 대상자 현황

| 총대상자(명) | 홍익회 등록내역 |        |        | 증감  | 비고                                 |
|---------|----------|--------|--------|-----|------------------------------------|
|         | 등록자      | 원호금수혜자 | 원호금종료자 |     |                                    |
| 54      | 42       | 12     | 30     | △12 | 단기 4283. 7. 11일자<br>서기 1950.7.11일자 |

##### 원호금 지급시기

- 원호금 지급시기 : 61년 10월부터  
교통상이 부원회 특별회원으로 등록
- 원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당시 월원호금 1,100원)

##### 원호금 수혜자 내역(99. 8. 31현재)

| 등록번호  | 순직자 | 등록일자     | 관계 | 수권자 | 생년월일      | 월원호금      | 비고 |
|-------|-----|----------|----|-----|-----------|-----------|----|
| 50059 | 박대겸 | 61.10.2  | 처  | 신동녀 | 23.10.26  | 275,400   |    |
| 50194 | 김재노 | 61.11.10 | "  | 박정순 | 24.10.24  | 282,600   |    |
| 50057 | 김용덕 | 92. 1. 1 | "  | 김연옥 | 28. 4.15  | 275,400   |    |
| 50193 | 강창욱 | 92. 1. 1 | "  | 최삼례 | 32. 8.13  | 275,400   |    |
| 50042 | 황태석 | 61.10. 2 | "  | 조순복 | 20.12.14  | 275,400   |    |
| 50049 | 박봉룡 | 92. 1. 1 | "  | 이정순 | 16. 6.21  | 275,400   |    |
| 50129 | 이순옥 | 92. 1. 1 | "  | 강순례 | 23.11.27. | 275,400   |    |
| 50046 | 강준성 | 92. 1. 1 | "  | 홍정순 | 27. 5. 2  | 275,400   |    |
| 50239 | 이동석 | 62. 2.14 | "  | 김연환 | 21.10.16  | 275,400   |    |
| 51058 | 박승혁 | 81.10.26 | "  | 강순임 | 19. 2.10  | 282,600   |    |
| 50074 | 안종문 | 92. 1. 1 | "  | 정진애 | 26.12.25  | 275,400   |    |
| 50044 | 조찬호 | 61.10. 2 | "  | 최요지 | 27. 3. 5  | 275,400   |    |
| 계     | 12명 |          |    |     |           | 3,319,200 |    |

### 4. 증언

#### ● 증언 1. 이리역 구내 상황

7월 11일 기관사와 기관조사, 조사계원 등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어디로 이동할 지 모르는 전시상황이라 비상대기 중이었다. 철도가 작전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대기 했지만 별다른 교전상황이 없었다. 별로 전쟁이란 느낌이 없이 지낸 것도 사실이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른함을 달래고 있었다. 당시 이리역엔 버드나무 두그루가 7월 중순 정오의 따사로운 햇살을 가리기에 충분한 휴식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 누워 있고, 장구나 바둑을 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전쟁의 분위기는 이따금씩 떠다니는 비행기 전도로만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의 시간인 2시를 넘어서 비행기 두 대가 이리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당시 전시 상황이라 비행기가 떠다니면 철도 기관사들은 습관적으로 비행기의 국적을 살핀다. 그날 비행기는 성조기가 그려진 미군기(아군기)가 분명했다. 그전에도 미군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어 그날도 그냥 흘려보내려다 아군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하기도 했다. 피신할 생각은 않고 미군기를 환영한 셈이다. 또 비행기에서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자 낙하산이 떨어진다며 신기해하며 담소를 나누던 여유로움도 잠시였다.

그때 굉음과 함께 불바다로 변한 이리역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때 생존자들은 여산이나 목천동, 송학동쪽으로 무조건 내달렸다. 그러나, 잠시 뒤에 미군기는 평화동 변전소 부근에 또 폭격을 하였다.

● 증언 2. 증언자 : 이덕구(66세) 현주소 - 군산시 나운동

“폭격이 있던 당시 난 17살이었고 형은 23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목천동 목상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날도 논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 2시40분께 폭격기 2대가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두바퀴 돌더니 이리역에 이어 평화동 전라선 철길과 변전소 사이 도로에 폭탄을 쏟았습니다.” 이 사고로 참변을 당한 형 이열구씨는 시내에서 목천동으로 도로를 걸어오던 길이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그 사실을 몰랐지만 갈산동에 살던 작은아버지가 피난 오면서 알려줘 시신을 수습했다.

“여름이라 흰옷을 많이 입은 민간인들이 이리역이 폭격 당하자 논이고 도로고 할 것 없이 모두 목천동쪽으로 쏟아져 나오던 중이었는데 또, 폭격이 있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철길을 따라 이리역쪽으로 가던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 증언 3. 증언자:강순예(77세) 현주소-목천동

이리역 미군기 폭격으로 남편 이경옥(당시 28세)씨를 28살의 나이에 잃은 강순예씨의 증언이다. 스무 살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 이씨와 강씨는 폭격지점과 불과 2km 떨어진 목천리에 살았다.

“당시 이리역에 근무한 남편이 폭격 때 이리역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찾으려 했지만 워낙 시신이 많고 형체를 알 수 없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흘 뒤 스텐레스 반지를 끼고 까맣게 그을려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확인할 땐 미군이 밟

고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사고가 난 뒤 이리역에 처음 갔을 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많은 데다 거의 새카맣게 타버려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찾기를 포기하고 이틀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스텐레스 반지를 끼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확인 결과 남편을 찾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 증언 4. 증언자 : 이창근(65세), 이창규(62세) 형제

당시 이리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창근씨와 동생 이창규씨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까지 점심을 먹고 청소를 한 뒤 6학년 전체 학생이 강당에 모인 음악시간에 '광'하는 소리가 나서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리경찰서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여 달려갔으나 사실은 이리역 기관차 사무소와 송학동 일대가 형체를 알 수 없거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역을 통해 송학동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에게 제지당해 결국 배산방향으로 돌아 집에 도착했으나 집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버지 이순옥(기관조사 당시 40세)씨와 어머니 정옥주(당시 36세)씨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체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3일만에 아버지 이씨를 기관조사들이 일하는 장소인 채탄장에서 찾았다. 이씨는 잔뜩 웅크린 자세에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제복에 달고 있는 기관조사 전용 회중시계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시신은 당시 시에서 일괄 처리해 공동묘지에 한꺼번에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정확한 매장 장소를 알 수 없다.”

## 5. 관련 자료 및 활동

### - 이리시 미군기 폭격사건을 수록한 공식 문헌 - 발췌 수록

- 익산시사 ( 익산시 ) - 한국철도 100년사 (1999년 발행 한국철도에서 발행)
- 철도주요연표 (84년 92년 발행 한국철도에서 발행)
- 철로 50년사 (97년 노조에서 발행)
- 한국교통동란기 (53년 교통부 발행)

### 『익산시사』

1950년 6월 25일에 북괴의 남침으로 7월 12일 미군기의 오판으로 이리기관차를 피폭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어 전란의 .....

### 『한국철도 100년사』

1950년 7월 11일 UN기 오폭으로 이리역 구내 대참사(이리운전사무소 직원



54명 순직, 중경상 300여 명

#### 『철도주요연표』

1950년 7월 11일 UN기 오폭으로 이리역 구내 대참사 발생(이리운전사무소 직원 54명 순직, 중경상자 300여명 발생)

#### 『철로50년사』

1950년 7월 11일 UN군으로서의 최초의 전투에 출격한 UN기 두 대가 지리과악의 미숙으로 이리운전사무소를 폭격하여 연료조역 1명, 기관사 8명, 기관조사(견습포함) 20명, 준비원 2명, 기술원 1명, 구내수 10명, 탄수원 9명, 수차원 2명, 전호원 1명, 도합 54명의 집단순직과 중경상 3백여명을 필두로 피난열차를 운전하다가 적기의 폭격 또는 폭파사고로 순직한 승무원과 구내입환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자를 위시하여 그 수는 6. 25부터 51년 5월 사이에 160명에 달했고 그 중의 많은 수는 구내작업중 희생된 부산지구조합원들이었다.

#### 『한국교통동란기』

이리역구내 참사( 145-147쪽)

1950년 7월 11일 아침부터 구름이 개인채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이날 이른 새벽 작전상 이리서 충주로 통하는 금강상의 교각이 아군에 의하여 폭파되었고 원인도 모르게 강경, 대전과의 통신이 두절되면서부터 이리에서는 전운이 가까워 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 자못 긴장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신이 두절됨에 이리지역 철도종업원은 전원이 직장에 출근하여 기관차를 정비하여 놓고 하시(何時) 하처(下處)에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날오전 11시에 구름 덮인 서남방상공으로부터 난데 없는 중폭격기 두 대가 나타나더니 이리지구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우군기 B29가 틀림없었다.

대기중의 종업원은 실외로 뛰어나와 우군기를 맞으며 환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뜻하였으랴 참전후 최초의 출전이었으리라. 지리에 어두운 우군기는 교통부 직원들의 환호를 적군으로 오인하였던 것이리라. 역사와 운전사무소를 비롯하여 모든 철도시설과 아울러 환호하는 종업원들 두상에 그대로 폭격의 세례를 주었던 것이다.

『B29야 B29야 하면서 모두들 좋아하였지요. 그러더니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으로 내려오면서 까만 덩어리들을 떨어트리기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빠라다, 빠라다 모두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쿵쿵 요란한 폭발과 순식간에 먼지와 연기에 눈앞이 보이지 않은 생지옥이 되었어요. 빠란줄 알았지 누가 폭격인줄 알았겠습니까?』

부상자중 한사람인 당시 이리운전사무소 기술주임 벽(薛)모는 후일 그 때 체험담을 이렇게 말하였다. 공격목표는 구내 운전사무소 이었다. 일대에 사재하여

작업중인 기관차는 물론 구내시설에 대하여 가공할 폭격을 하였다. 폭격을 받으면서도 아방(我方)인 것을 표시키 위하여 피신할 생각은 않고 나서서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소리 외쳤으나 고도 수천척의 상공이 비행기에는 들릴 리가 없었다. 생각다 못하여 태극기를 두르며 사무소로 뛰어갔다 그대로 폭풍과 함께 멀리 산산이 흩어졌다. 나중에는 누구 한사람 살려고 애쓰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시설 없는 대피소를 찾지도 아니하였으며 사무소, 차고, 기관차 밑 대는 대로 엎드려 오직 천운만 바랄 뿐이었다. 그들은 전우가 쓰러지는 것도 구제할 심사는 없었다. 발악과 함께 어디론지 짜개져 가는 육체는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옆에 있던 동료는 어디론지 없어졌다.

『00! 소리지를 때 또 그 음성은 폭음이 휩쓸어 가는 것이었다. 살덩어리와 피와 신음소리 아비규환 하는 가운데에 자욱한 포염과 불꽃이 온 이리천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도 십수명의 동우가 기름때에 땀을 씻으며 일하던 구내는 아수라장화하고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광! 소리와 함께 건너편 기관차에 기계수리를 하던 B군은 50미터 상공으로 날리는데 그 육체가 하늘로 올랐다가 떨어질 적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저쪽 창고 앞에 떨어졌지요. 나는 내물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쪽으로 기어가려 힘써 보았으나 웬일인지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했어요. 얼떨떨한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앞을 보니 내 다리 하나가 뺏어져서 있었어요. 나는 놀랐다가 보다 하도 신기روی어요. 다리가 없는데 목숨이 붙어 전우를 구출코자 달려가려는 그것이 아무다리가 없는데 목숨이 붙어 전우를 구출코자 달려가려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병원에서 절명하고 만 K씨의 말이다.

『아 - 무서워요. 사람의 팔과 머리 다리가 난데없이 내 머리 위에 벼락을 쳤을 때 나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 그뿐인가요. 더위에 못 견디어 몇몇 친구들은 기관차 그늘에서 환담하며 B29가 왔다고 서로들 감격한 눈으로 하늘은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 어느새 옆에 서있던 기관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쿵! 쏟아져 그들을 그대로 그 무거운 몸둥아리로 눌러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한 부상자의 목격담이었다. 아군의 오판으로 이리역구내에 이 불의의 참사가 일어났었다. 이 결과는 이리지역, 철도시설 전부를 산산이 부서버렸고 54명이란 가공할 수의 순직자와 중경상이 무려 300여명이란 미증유의 참사를 일으켰다. 여기 그 때 산화한 고인들을 들어보면... 『별첨자료』

구호반의 활약 (152-152)

50여명의 즉사자와 300여명의 중경상자를 내 이리지역의 참사는 교통본부로 하여금 소연케 하였다. 이 급보에 접한 교통부에서는 즉시 구호반을 급파하였다. 박재철(본부 후생보건계장) 의 10명으로 조직된 구호반이 이리에 도착되었을 때는



낙조가 비친 석양이었고 오후2시반경에 돌발된 사변이니 이 동안의 경과가 또한 애처로운 것이었다. 화염에 쌓인 이리지구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으나 질서 잡힌 구호사업은 어려웠다. 새내 몇몇 의료기관에서 동원되어 구호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일반가옥과 민간에 대하여도 구호의 손이 부족하였다. 이 때 자신의 상처의 위해를 불구하고 과감히 구호에 일어난 세명의 동지가 있었으니 그는 이리운전사무소 설주임과 송조역 이리역 구내조역 김씨였다. 그들은 중대한 과편상을 입었음에도 내의를 찢어 출혈을 막고 시체와 쓰러진 부상자들이 즐비한 구내에 출혈을 막고 시체와 쓰러진 부상자들이 즐비한 구내에 뛰어들어 남은 몇몇 종업원을 모아 구호에 착수하였다. 통신선이 두절된 나경에도 각역전으로 대전까지 지급구원을 청하였고 이리지구 교통의무실이 완전 의사를 대동 응급치료를 시행하였다. 우선 이미 절명된 사람은 차치하고 생명의 위독을 느끼는 수십 명의 부상자를 안전지대로 업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리역사를 구호소로 설정하고 한사람 한사람 구출하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여하튼 위독자만 처치를 끝마치고 다음으로는 보행 가능한 부상자를 부축하여 구호소까지 인도하였다. 이러 하는 동안에 대전서 급파된 구호반을 맞게 되었다. 일심기장과 의기로서 자신의 위해를 무릅쓰고 침착하게 감심할 구호사업을 감행한 이들은 응원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쏟아졌던 것이다.

구호반은 소지하여온 의약품이 모자라도록 자가 시료를 하는 한편 시내 각 병원에 분산 수용하고 순직자의 처치를 현지에서 대철국직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50여명의 장의는 참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 많은 시체를 운반하는데는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일몰다음에 야간작업이었으랴. 아수라장의 구내를 어둠 속에서 산산이 흩어진 육체들을 더듬어..... 참으로 이것은 잔인성 없는 사람으로서 감행 못할 일이었다. 그들은 촛불과 석유 등불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의생적 모험을 수행하였다. 전선의 정세가 예리하여감에 따라 후방에서의 이러한 참변을 겪는 구호반들의 눈물겨운 구호작업이 연 수일 동안을 계속하였다. 금강전선이 위급을 고하여 14일 정부가 대규모 이동함에 있어 교통부로부터 - 구호반의 구호작업이 일단락 되는대로 곧 철수할 것, 가급적 환자를 대전으로 이송케 할 것을 명 받아 16일까지 환자를 대전으로 이송하며 자신들은 위기상태에 빠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16일 대전지방 완전 철수령과 아울러 이리지구 조업원에 후퇴명령이 내렸을 때 금강 하류를 도하한 적의 선유대가 강경 논산에 이르게 되었다. 아슬아슬한 적전 구호작업은 이대로 도중에서 포기하고 철수하였으니 이 지구의 참변은 또다시 참사를 거듭하게 되어 후의 소식은 다음에서 듣기로 하자- 이하 생략-

## 7. 여순사건

### 1. 발생시기 및 지역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하여 전남동부지역 일대

### 2. 가해자 및 당시 상황

#### 1) 당시 상황



전남동부지방에서는 구국투쟁과정의 구례, 순천을 포함한 4개군에서 5.10선거 저지투쟁이 발생하였다. 즉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례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동부지방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 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5월에 들어 3.1절에 격렬한 대규모 시위양상을 보인 순천은 우익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는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고흥에서 48년 3월 29일 새벽 3시에 安在貞, 高興南, 李某 등 3명이 대서면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9월 3일 수도청 경찰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와 미군정의 미곡 수집령으로 인해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을 도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천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풍우와 수해의 피해로 여수에서는 여수읍민들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데다가 춘궁기까지 겹쳤던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수립·선포로 한민족은 비록 반쪽이나마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정 통치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제1공화국의 출범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그것은 지주, 보수적 언론인, 지식인을 주축으로 한 한민당,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관료체제, 단결심이 강하고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좌익을 제압하는 데 있어 '선봉장'인 경찰조직, 독축, 대동청, 서북청 등의 청년단체, 농촌지주층, 엘리트층 중심으로 한 독축국민회 등의 정치·청년, 사회단체 등이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경비대내에는 남로당원 및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폭동이 진행중에 있었고 미군정기의 '가을폭동'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좌익이 잠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방이후 절정에 이른 민중들의 민생(民生)문제였다.

2) 가해자 :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과 진압군

### 3. 피학살자 현황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일대에서는 8개 지역에서 만명이라는 무수한 인

명이 집단학살을 당하였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는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총 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기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를 조사하였거나 현재 조사하고 있는 피해 통계추정치인 10,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4.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대한 해방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반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와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및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로 이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3백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경찰과의 교전 이후 여수와 순천과 같은 소위 해방구인 점령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포로로 잡힌 경찰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2)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인데 이는 반군에 대한 초법적인 계엄령 발동의 진압과정에서 아군인 진압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1만여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무차별한 진압과정과 계엄 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로 무작위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였다.

3)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으로써 이는 진압과 계엄상황이 끝나고도 산악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군과 지방좌익에 대한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악부근의 마을 민간인들이 피아간의 공방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토벌과정의 집단학살 시기는 한국전쟁기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4)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이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정



부는 이 지역의 수 많은 좌익활동가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해 사상 전향을 종용했고 또한 대다수의 그들은 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거의가 집단학살을 당하고 마는데 여수 오동도 앞바다 애기섬의 150여명, 대전형무소의 여순사건 관계 정치범 1,300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의 주체로 본 유형으로 우익측에서는 국방군, 경찰, 우익단체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좌익측에서는 14연대 반군을 주축으로 지방좌익과 빨치산으로 대별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들의 유형이다. 피학살자는 우익의 경우 군인, 경찰, 지역 유지인사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의 전 주민 다수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위의 여순사건에 대한 민간인 학살의 형태를 시기별로 대입하여 볼 때에 그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작은 전쟁기인 국지전 군인 봉기 시기에서부터 전면전의 형태인 한국전쟁 전기까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진압군인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비롯하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일부와 곡성 일부까지도 학살 대상지역이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총 동원한 인권 박물관과 같아 인권 유린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은 그 근원을 빨치산의 원조 격인 14연대 반군의 무장봉기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그 피해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 지역 일대에서 여수지역 5,000명·순천지역 2,200명·보성지역 400명·고흥지역 200명·광양지역 1,300명·구례지역 800명·곡성지역 100여명으로 총 1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9,500여명이었으며,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

| 사건 발생지역 | 피학살지 | 피학살자 수 |  | 학살가해자                   |
|---------|------|--------|--|-------------------------|
|         |      |        |  |                         |
| 여순사건 지역 | 여수   | 5,000  | 10,000<br>(지금까지의<br>실태조사를<br>통한 추정치<br>포함) | 국군, 경찰,<br>반군, 지방좌익     |
|         | 순천   | 2,200  |  |                         |
|         | 보성   | 400    |  |                         |
|         | 고흥   | 200    |  |                         |
|         | 광양   | 1,300  |  |                         |
|         | 구례   | 800    |  |                         |
|         | 곡성   | 100    |  |                         |
| 계       |      | 10,000 |  | 국군 등 : 95%<br>반군 등 : 5% |

※ 출 전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 2집』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5. 증언 및 사례

● 순천 유족 인터뷰

장홍석(55세), 최정수(55세)

장홍석: 저기 여수쪽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고 너무나 양쪽 쌍방이 너무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해서 심지어는 팔월 추석날 성묘를, 팔월 보름날 가야할 성묘를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나 이틀 후나 하루 후나 서로 안 마주칠려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장소에 묻혀 있으니까 서로 지금도 얼굴을 안 부딪칠려고 추석 명절을 날짜를 변경해서 가고, 별초하는 것도 날짜를 서로 안 부딪칠려고. 그래가지고 여수 유족들은 별로 나타나질 않아,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참상을 다시 겪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안 나타나고.

최: 지금도 그것을 감추고 있죠. 지금까지도.

장: 기름을 뿌려가지고 다시 다 태워버렸어. 사람을 총으로 쏘 죽여 가지고.

최: 너무나 거여. 그 민간인들은 무슨 죄여.



장: 일시에 온 마을이 거지가 되다시피 해 갖고 탄 마을 친척한테 가서 셋방살이 언허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고통이라는 게 뭐.

최: 옛날에 먹을 게 있어요, 뭐 집이 온전히 돼 있어요, 입을 게 제대로 있어요? 이런 것을 진상을 안 밝히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야 안 돼요. 주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이 경찰 계통에 있고 그런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재산도 탈취를 해 가지고 그 자손들도 잘 가르쳐놓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요것을 진상을 규명을 안 해 줄려고 항상 그러죠.

장홍석: 작년에 우리 순천 지역에서도 위령제를 순천 시민단체들이 주선해 가지고 위령제를 모시는데, 장소를 선정해 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다섯 차렷가 몇 차렷가 장소를 선정해 놓으면 다시 방해공작을 해 가지고 탄대로 옮기고 탄대로 옮기고 마지막판에 순천에 그 우시장 로타리에서 하는데 (카메라 앞으로 이동. 장홍석씨만 잡음) 저녁 7부터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7시에 가니까 인제야 무대를 짓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와 가지고 방해공작을 해 가지고 그런다고. 사람도 조금밖에 안왔어.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 주변에는 전부 있는 것들이 다 사복입고 경찰들이라 이거야. 심지어는 기무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꼼짝 달짝 못하게 압력을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방 된 후에 완전히 친일파들이 미국놈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친미로 돌아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력과 금력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린 거야.

장홍석: 밤중에 온 산등성이 뺨 둘러서 불을 확 질렀다는 거야. 그리고는 총을 공포를 쏘면서 오니까 전부 한밤중이라 자다가 모두 이거 큰일났는가보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나오라고 고향을 지르고 총을 쏘 대니깐.

최: 밤에 그래버렸구만.

장: 잠옷 바람에 전부 나왔어. 동네 앞 도로 앞에 쪽 세워 놓고는, 이장을 불러내 갖고 이장을 뒤로 묶어 가지고. 동네 앞에 물이 흐르는 보물에 거기다가 집어넣어 갖고는 부글부글부글 곧 죽을라고 그러면 다시 꼬집어 내갖고는 그놈을 두드려 패갖고는 온 동네의 빨갱이 활동을 했다는 걸 실토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근게 동네사람들을 죄인이라 할수 없으니까, 안되면 다시 또 물에다 집어 넣어갖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다시 또 온 몸이 젖어갖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실토했) 안되거든. 그러니까 문흥기 요놈을. 그놈을 인자 총상을 우리동네에서 계속 치료해 줬으니까. 반란군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밥해주고 그 사람들 심부름 해주고 (그놈이)다 봤거든. 그리고 또 문흥기 그놈의 새끼, 밥해주고 옷 빨아주고 감 홍시도 주고,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이 사람 집에서 밥해줬다, 이 사람이 옷빨아줬다 (이러는 거야). 이장이 도저히 그게 없다고 하니까 그놈을 앞세워 가지고 요놈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전부 실토했 내라고. 이사람

그러는거야. “나가 언제...”. 그러면 쪽까 열여섯살 먹은 놈이 “이, 씨” 상말로 막 하면서 발로 툭 차면서. “니 안그랬냐고” 그래갖고 두줄로 딱 죄인아닌 죄인으로 줄을 세워놓고는 동네 가운데 동네 앞에 딱 세워놓고 총살시킨 거지. 그렇게 하나는 세 살먹은 아들을 안고 같이 지엄마하고 죽어버리고, 네 살 먹은 가이네 하나는 지그 어머니가 엮은 채로 죽고.. 하나는 총을 설맞아 갖고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도망가갖고 마루밑에 들어가 갖고는 몰달라고 악을 부룩부룩 지르고. 다 죽이고는 사람들한테 기름 찍어갖고는 다 태워놓고는, 일부 군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처마에 불을 논거야. 다 타는디 그중에서도 일부 양심있는 군인들은 ‘큰일 났는데, 큰일났는데, 동네사람 다 죽이겠다고, 와 막 큰일 났는데’ 하면서...

최: 지그들도 사람이니까.

장: 그 사람들이 물러간 뒤에 현장에 가봉께, 어떻게 많이 타버렸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비너로 찾고, 어떤 사람은 이빨로 찾은 사람, 반지로 찾은 사람. 신체 특징으로 찾은 사람... 가족이 희생 안당한 사람.. 그렇게 옛날에는 반란군들이 오면 동네 변두리로는 금방 경찰들 습격을 받을 우려가 있음께 동네 중심으로 온다메. 그렇게 동네 중심 산 사람들은 다 피해 봤어. 그래 가지고 딱 가봉께 그 지경이 돼가지고 있는데, 시신을 찾았어도 다 넋이 나가버렸제.

최: 말로 표현 못하제.

장: 연장도 없고 집이랑 다 타버렸으께. 인부 얻고 연장 얻어갖고는 큰꼴 있는데 전부 집단으로 묻었어. 나중에 부모 찾아서 전부 다 이장을 했지만. 그래갖고 그때 당시만해도 집들이 돌담으로 처마가 아주 초라하게 옛날 집 아닌가? 우리 동네는 오십년 전에 전부 새집을 다 지었거든. 동네 완전히 울타리 하나도 안남고 다 피해를 입고. 전부 잠옷바람으로 나왔으니까 옷 한 가지가 있어, 밥 먹을 수저, 그릇이 있어? (다른 마을 사람들이) 평생 거지로 살거야 그랬다니께. 전부 친척집에 가갖고 낮이 되면 농사짓고 해 넘어가면 다시 또..

기록에 보면 나도 그때 세 살 먹었는데 나도 죽은 사람으로 되어있어. 우리 엄니가 나를 보듬고 들어갔어.

최: 근디 그 가운데 자넌 살았네?

장: 우리 형수하고 같이 죄인 줄로 딱 세워. 우리 형수는 죽일것은 생각도 안하고, 창원 삼촌 그 사람을 군인들이 군화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두드려갖고 피가 질질. 그것을 보고는 그렇게 겁혀 들어가면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할 것이 무서워서 우리 형수는 나를 업고, 우리 엄니가 형수한테 줬어. 형수가 젊으께. 내 조카 영희는 배 속에 배갖고. 죄인 줄을 세워놓으면 우리 형수는 안 맞을려고. 앉아서, 서면 보이니까 살짝 살짝 요쪽으로 가. 또 살짝살짝 그리 가면 그놈들이 금방보고 왜 이러냐고 막 호통을 치고 발로 툭 차고. 또 그놈들이 안보면 또 살짝



살짝. 내가 안죽고 이렇게 살라고.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죄없는 줄로 썼어. 우리 엄니 안고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

최정수: 내 같은 경우는 학생. 아까 나 형무소에서 죽은 거, 그 시신도 모르고 제사 날짜도 제대로 모르거든. 지금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내 아버지도 그냥 마을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장: 나 세 살먹고 어미를 잃고, 나 조카가 외가에 간다하면 그렇게 부럽고 나도 따라간다면 막 울고. 누가 엄마 엄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부럽던지)...

최: 우리가 인자 유족들을 싹 모이고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 없더라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의다 우리 그 수준이여. 수준이.

장: 희생당한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또래 육십대 전후.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살아있어도 세상살기가 어려운 시대라. 더군다나 부모 있고 그래 놓으면 다 교육 혜택을 못 받았지.

최: 그러니깐 현 사회에서 뒤쳐져 버린 사람이 되고.

최: 우리 어머니도 22살에 혼자 돼 갖고 할수 없이 다시 친정으로 가게 됐지. 참 지금 세상 같으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애기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뭐 있어. 그대로 죽는거지. 우리 참 어렵게 컸어. 어렵게. 그렇게 배움이라는 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만 했지. 학교 가다가 말다 그러다 저러다 초등학교도 말아버리고.

김희철: 지금 하시는 일은? 비닐하우스..

최: 농사짓고.

김희철: 뭐 키우세요?

최: 오이. 과수원도 좀 하고. 가정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못사는 사람은 없지만 해도. 남 뒤쳐지고 그러진 않아요. 사는 게.

최정수: 이것을 밝힐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지만 가정적으로도 이것을 감추고 살았어. 우리집 애기엄마도 안 가르쳐 줬어, 지금까지. 인자서 싹 가르쳐 주고.

김희철: 자제분들이나 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최정수: 가슴아프다 그라제. 말도 못하게. 눈물이 북받치고.

최: 인자 이사건을, 그런대를 댕기면서 아버지 신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던거지. 감추고 있으면 안되겠고. 내가 인자 죽을라고 할때 애기들한테 가르쳐주고 죽을라 그랬는다. 난 세상이 요렇게 될 줄은 모르고. 요렇게 기회가 돌아오고 그래서 인자는 싹 가르쳐줘야 되겠다.

장홍석: 옛날에 왜정 때에 경성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이야. 당시에는 남자 한클라스, 여자 한클라스. 여자 50명 중에서도 30명은 일본사람. 20명만 한국 사람. 서울대 법대보다 더 세지. 그런 데를 나오신 분이네, 그분이 23살 먹어서 자기 새각시때 얘기를 안고 그 상황들을 전부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다 당하고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분이 77인가 해서 돌아가셨는다. 그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수에 자기와 같은 연령층의 그때 당시 좀 배웠던 사람들은 전부 싹 쓸어버리고 없고. 자기는 교육도 받을만치 받았고 또 그때 상황을 다 목격하고 그래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디 남은 여생에, 잘못된 역사를 밝히는데 앞장서서 일하는데. 이영일 소장도 그분 돌아가신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 그분은 나이도 많을뿐더러 그분 동료들은 사회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야. 그분이 하나의 앞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거지. 여수 정보과에서 오라고 해서 이 여자보고 당신이 만약 남자만 됐더라면 뺨을 막 때렸을 거라고 협박을 하고. "당신들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나를 유치장에 가두고 싶으면 (맘대로 해라), 이제 70이 넘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냐? 당신들 하나 무서운 것 없다."

그뒤에 그분이 차를 세대를 불러가지고 여수 고등학생들을 여수의 아픔을 젊은 아이들이 알아야겠다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여수의 현장답사를 다니는데, 여수 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와서 차 하나에 하나씩 탑승해서 같이 다녀. 이완희여사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들, 이 철모르는 애들이 뭐 안다고 여까지 감시를 하러 오냐? 당신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냐? 이날까지 사회 그늘 속에 가려가지고 눈물로 세상을 보내는 그 유족들이 이제 조금.. 그것을 이런데까지 와 감시를 하나?"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여수의 사건을 전부 이야기 하면서, "다 집에 가거든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수의 역사를 물어봐라. 너희들도 여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봐라. 너그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지금까지도 형사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댕긴다." 그놈들도 위에서 시킹게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그분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보고 와 갖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

최: 너무나 과로를 많이 했던거여. 올봄에 여름참에. 이완희여사라고 참 훌륭한 분이였었다.

장: 지금 여수에서는 상당히 좋은 징조가 보이는 것이 여수시장이 유족모임이 있으면 계속 참석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여수 만석리 앞 2만평을 유족회에다가 떼 주고 위령탑을 세워주고. 시예산이 그런데에 나갈 수 있게 명목이 있는가 보재. 유족회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순천은 불행히도 시장놈이 도둑놈을 얹혀 놓고. 의회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야. 내일도 시의회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뭘 말한다고 해서 회장(유족회)은 그것을 보고 내일 온다고.

최: 그때 당시 신윤식 순천시장은 자기가 경찰가족이라 해서 그것을 반대를 했는 갑더만. 그렇게 순천 시장 한분이 면 갑부였어요. 상당히 부자죠. 그런 것을 딱 보면 그때 그런 총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잘살고 잘 가르쳤더라고. 그런 사람들 압력에 안돼.

장홍석: 힘있는 사람들이 온 사회를 주도를 했어.

최: 자기는 못해준다고 시장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지금 순천시장이 돈묵고 5년 형받았거든. 순천시장 대신 들어갔다 그라네. 잘됐다고. 그런 것을 자기가 경찰가



죽이었을지라도 그때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상을 규명하고 죽은 사람들 명예를 회복해 주고 그러자는 뜻이지. 지금 그 사람들 처벌이 되요? 안되지. 아무리 경찰가족이 됐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 장: 거창사건, 제주사건.. 현 대통령이 이것을 좀 과감히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하더라도 빨갱이니 뭐니 야당에서 또.. 그렇게 정치공세에 몰릴기라. 그리고 여당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요거 터지면 요거 방어하다가 정신을 못차려.

### ● 순천 유족 인터뷰

장홍석(55세), 최정수(55세), 박희원(순천 유족회 부회장)

안승규: 이번엔 뭐 통과가 되어되는데 날짜도 촉박하고

장홍석: 현재 이 활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안승규: 어려움이 많은데, 상황이 진전이 되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고 사이 진행상황을 성과같은 걸 말씀드릴 겁니다. 누구든지 전부다 유족이니까 같이 합동작전으로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판사람 내려가더라도 여 계시면서 계속 협조를 하면 좋고, 자꾸 바뀌고 바뀌고 올라 오시는데,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장홍석: 형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안승규: 전 경북 예천입니다. 살기는 대구 사는데, 예천에 많이 돌아가셨고.

장홍석: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안: 예, 제 아버님이. 노근리 사건이 막 터지고, 98년도에 노근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천 조사하고 거의 다니면서 조사 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게(자료쪽으로 손 가져감) 우리 자료, 예천 자료입니다, 이게.

최정수: 자식들도 나이가 육십이 가깝고 다 그 선이죠. 또 그 때 그일을 부모가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못 배웠어요. 재산도 못가지고 배우기도 못허고. 그러니까 힘이 없죠. 한번 그런 것을 당해놓으면 힘을 못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맺힌 게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시민단체에서 젊은 층에서 협조가 안되면 일이 해결이 안되죠. (다른 분들 목소리 섞임) 알고 보니까 지금 재산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당시 부모들이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최고 어른이요.

# 장: 예천서는 희생된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안승규: MBC에 나간 거로는 500명 나왔습니다.

장홍석: 장소가 여가 있는 줄 아는데도 해골을 못 골라네.

김상준: 대구경북 지역같은 경우는 유족회 활동을 하다가 5.16 쿠데타 일어나니

가 그냥 싹 없어지고..

박희원: 그때 당시에는 유족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제.

장홍석: 우리 지역쪽 상황은 어떠냐면, 어느 지역이 안 그랬을까마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몸서리를 치고 지금도 여수쪽에 가면, 금년에 여수 순천 유족회가 발족이 됐지만은 삼년전에 유족회를 발족하려고 첫 시작이 됐거든요. 여수 문화회관, 문예회관 거기서 처음에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한 15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여수지역 여맹위원장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빨갱이제. 여자 대장. 여수지역. 그때 한 칠십 몇 됐더라고. 그분도 왔고, 그때 당시 경찰 부인도 왔고. 그렇게 쌍방이 다왔어.

장홍석: 거기는 지금 그때 집단으로 학살해갔고 시체가 한구 두구가 아니라 몇 십구를 한데 갖다 버린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가을이 되면 벌초를 하잖아요. 풀깎는 것도 그 시기에 못하고 서로 상대방 눈을 피해서 서로 오고. 팔월 추석에 성묘를 오는데도 추석날 성묘를 대부분 가는데, 추석날 가면 서로 마주칠까봐 안 마주칠려고 이틀 전에 사흘전에 와서 성묘를 하고 가고, 이를 사흘 후에 성묘를 하고.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을에서 서로 손가락으로 죽이고 살리고 자기네들이 확실히 그걸 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안승규: 왜 서로 안 마주칠려고 하세요?

김상준: 그러니까 영남지역은 일방적으로 남한 군인이라든지, 미군에 의해서...

장홍석: 아니, 여수도 군인 경찰이 다 죽였는데, 그것을 전부 안단말야.

안: 그러면 거기 가해자는 산소에 왜 오는데요?

최: 가해자는 경찰 가족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민간인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항상 민간인은 제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가해자가 보통 적잖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서같은데...

최: 피해자가족은 일단 가족이 없어져 버렸는데, 막 집단으로 죽어버렸는게.

안: 가해자도 몇 명 안되는 데다가 전쟁 끝나고 전부 잡아서 죽여뿌렸는데요. 죽여빨고 안 살려와 버렸어요.

장: 여수는 지금 육십대, 칠십대 된 사람들은요. 그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싹 쓸이를 해 버렸어요. 그 연령층은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최: 순천은 조금 덜 죽었죠. 여수는 한 일주일간 막 진압군이 들어오니깐. 그때는 또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민간인은 이리도 끌려가고 그때 해방직후라 그러면은 먹구 살기도 어려운 때잖아요. 상황도 모르고 살라고 저리 가다보면 살라고 따라가다 보면 죽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근게 그걸 말로다 표현을 못하지.

안: 가해자가 살아있다는 얘기네. 우리는 가해자는 없어. 가해자는 다 잡아 죽여 버렸는데, 뭐.



최: 그렇게 그때는 민간인들이 죽으면 법으로 가서 이거 하소연을 해야 하는데 죽으면 대체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어야지. 같이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 버리니까. 죽은 사람만 당하고 마는 거죠.

김상준: 3년 전에 창립식하고 그럴 때 경찰 쪽에 있었던 가족들도 오시고 했는데... 추산은 되세요? 소위 그런 군경 가족들. 어림잡아서.

장: 모르지. 난 더군다나 순천쪽에 사니까 여수 쪽은 모르지. 여수쪽은 어찌 됐냐면 처음에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반란을 해 가지고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고 자기네들 규합세력. 말하자면 경찰이랄지, 우익세력들 일부 거기서 죽이고 여수지역에서 빠져 나가버렸는데 그뒤에 국군이 바다에서 내륙에서 삼면포위를 해가지고 전부 여수 전 지역주민들을 곳곳에 학교랄지 곳곳에 모아 놓고는 인민재판같이 전부 해가지고는. 평상시 감정이 섞여 갖고 죽음을 당한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무더기로 막 그냥. 그때 총맨 자국이 있다거나 신을 뭘 신을 신었다거나 옷을 그 사람들 옷을 입었다거나. 쪼금이라도 그 흔적만 이상한 티만나면 전부 막 죽여버린거야.

최: 그래 갖고 14연대 군인이 순천으로 퍼져 올라오면서. 인자 그 사람들이 우선 먹을게 없으게 밥을 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 밥을 해주면 밥해줬다고 진압군, 경찰들이 밥해줬다고 막 죽여버린거야.

장: 순천쪽에는 반란군들 올라오니까 산으로 다 숨어가지고 있다가 밤이면 내려와서 민간인들한테 식량 약탈해 가고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같이 데려가고. 마지막 가서는 쪼금이라도 밥을 해 줬다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식량도 주고 뭐 그런거.

박희원: 그때 당시에는 총칼 앞에 대고 같이 행동하자고 하면 따라가.

최: 안할 수가 없죠.

박희원: 경찰은 해만 넘어가면 오도 못해. 낮에 와서 난탈 치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그놈들 쌀밥 맥인거여.

장: 그때 당시에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낮에는 경찰들이 와갖고 진을 치고 간밤에 반란군들이 와갖고 무슨일을 하고 갔는가 그 사람들 행적을 조사하고, 또 해가 넘어가면 반란군들이 무서우니까 싹 피해 가뿐다.

박희원: 밥해주고 신고안한게 죄여. 가다가 죽을라고 신고해?

장: 낮이면 경찰, 밤이면 반란군, 계속 시달리다가.

박: 그때 당시에 집에가 있어도 어디로 피신도 못해. 가족들 다 죽여분다 그러는디. 아, 넘의집 사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서 공산당하고 똘당하고 했으께요? 그 참...

최: 무식한말로 가가 뒀자도 모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린 세상이니께.

박희원: 그때만해도 유교사상이 깊어갖고. 장자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호당 한 집에 한명씩 나오니라 요놈들이 그러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막둥이나 좀 거식한

놈들 내보내면 20미만에 된 철이가 있어서 그랬겠어. 참 거, 그런 학살을 시켰어. 장: 우리 마을엔 하나 실 예인디, 우리 부락은 조그마하게 32호 정도 밖에 안됐어. 산골에. 계속 낮이면 경찰, 밤이면 반란군. 이쪽저쪽 계속 시달림을 받고. 동네 젊은 청년들은 낮이면 농사 짓다가 밤이면 오후에 해가 넘어갈라면 장작 짚어지고 파출소, 그때 주재소라 그래. 주재소에 가서 밤에 경찰들과 같이 반란군들 습격하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밤이면 장작을 짚어지고 해가 넘어가면 주재소에 가서, 해가 뜨면 다시 집에 와서 농사짓고 낮이면 경찰이고, 밤이면.. 그리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친척이라든지 외지에 가서 있고..

열네살 먹은 철모르는 애기가 상당히 빠릿빠릿 했나벼. 반란군 뺨에 넘어가갖고 반란군 연락병 역할을 했어. 그러다 그 애가 낮에 경찰 총에 맞아갖고 부상을 당했네. 반란군들이 요놈을 데리고 우리 마을에 왔어. 요놈을 잘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해주라. 만약에 쪼금이라도 소홀하거나 치료가 잘못됐을 때는 온마을을 완전히.. 협박을 해. 그러니까 이장님이나 사람들이 벌벌떨고 옷도 빨아주고 밥도 맥여주고 잠도 채워주고 애기 흥시 주라면 흥시도 주고.

거진 치료가 되갖고 이놈이 다시 지그 거석을 찾아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 앞에 가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낮선 애들이 오면 굉장히 애들을 막 건드려. 그렇게 애가 어느 마을에 가갖곤 시비대상이 돼서 싸워. 애가 뭐랑고 하니 우리 반란군들 데려와서 너희들 전부다 죽여뿐다고 큰 소리 치는거여. 그때 지나가던 면사무소 댕기는 면직원이 그것을 봤어. 그래서 그놈을 경찰서로 넘겨놨는디. 낭중에 토벌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요놈이 반란군 연락병이라면서 우리 동네로 들어온거여. 그래서 온 동네를 완전히.. 한집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타버렸고, 온동네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놓고는 이장님을 뒤에 딱 몽둥이로 묶어갖고는 동네앞에 개울이 물이 흘러. 갖다가 딱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여 숨이 넘어가면 꺼내 놓고 자백하라 그거여. 온 동네사람들이 빨갱이 역할을 했다는 거를. 이장은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지 빨갱이 그런건 전혀 모른다. 계속 해도 이장이 죄인이라 할 수가 없으게 14살 먹은 이놈보고 반란군들 밥해주고 반란군들 심부름 해준 사람들 찾아내라는거야. 이 14살 먹은게 쪽 한줄로 세워놓고는 이놈이 손가락질만 하면 전부 죄인이 되는 거여. 밥해 준 사람들도, 식량 준 사람들도 죄인. 동네 딱 가운데 갖다 놓고는 32호 중에서 22명이 죽었는디. 세 살 먹은애, 네 살 먹은애 하나 죽고.. 맨 여자들이 많이 죽었는디. 전부 총살해놓고는 싹 죽이고는 그도 모자라서 기름칠 해갖고 기름을 부어갖고 다시 또 태워버렸어. 또 밤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잠옷 바람으로 나와서 옷가지 하나 못 건지고 심지어는 밥그릇 수저하나 없고. 시체 문을 연장이 없어. 이웃마을에 가갖고 인부들을 사고. 연장을 빌리고 집단 갖다가 매장 해놨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자기 가족들을 찾아서 이장을 했는데. 그때 전부, 완전히 그런 상황이 우리 순천 지역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런 상황으로 많이 죽고 오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많이 죽고.

최: 가다가 잡히고 오다가 잡히고 잡히면 그거이 바로 죄여. 그거이 바로 죄.

저희 아버지도 결혼 막 해가지고 나하나 딱 내놓고 집에서 순천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갔고 그날부로 못 오고 경찰서에서 광주 형무소로 넘겨갔고 그대로 죽었고. 죽은 날짜도 갈켜주지도 않고.

안: 집으로 보내줬다구요?

최: 안 보내줘요. 근게 어디서 죽은지를 확실히 모르죠. 광주교도소에서 그랬다는 것은 알죠.

그 기록을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알수가 없제. 정책적으로 그런 걸 다 해줘라. 그런걸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지역의원들이나 만나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이 있는데 그 죽은 날짜하고 그 죽은 위치라도 가르쳐주소.' 그 하소연을 많이 하죠. 지금 정치하는 것 보면 죽인 사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요것을 안갈켜 줘요. 그러나 시민이 요것을 협조를 해서 이것을 막 일어나야 규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홍석: 그 사람을 총으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반 송장이 되갓고 질질 끌고가는 것을 다 목격하고는 저그 죄인이라고 잡혀 가며는 저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형수는 앉아서 서면 보이니까 앉아서 살짝살짝 그 사람들 반대보면 살짝살짝 죄없는 사람 줄로 가서. 우리 엄니는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내고 가갓고 어머님만 죽은 거제. 그때 당시에 온 동네가 말도 못해. 소가 다 죽고, 돼지 다 죽고, 아무것도 안남았어. 완전히 불바다 되버렸어.

장: 젊은 20대 전후의 장년들은 반란군들이 식량이랄지 가족이랄지 털면 저그들 힘으로 가져가기 힘드니까 부역으로 데리고 가. 골짜기 가보면 소대가리가 골짜기마다 줄줄이 굴러뎅기고, 소도 잡아가면 제일 맛있는 부분만 채 썰듯이 고급 부분만 먹고, 맛없는 부분은 내버리고. '오늘 저녁엔 장안 마을 털러가자.' 내일 모레 부모 제사라고 쌀 단지 조금해 놓은거, 그거 니꾸사꾸에 탁 털어놓고. 내일 모레 며느리 얘기 난다고 미역 해놓으면 그거 다.

장희원: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느그놈들 때문에 죽었다고 난리를 치거든. 총부리 갖다가 가슴에 쿵. 통 그런 세상이었어. 무법천지...

안: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죽은 시기가

장: 그렇게 여순이 발발한지가

최: 1948년 10월 19일.

장: 우리는 49년도에 8월 17일날, 6. 25 나기 일년 전.

김상준: 여순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상도로 치면

진주쪽 빨치산들이 있었고 진주 빨치산분들이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쪽 호남쪽으로는 남원, 구례, 순천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산줄기로 해 가지고 그쪽까지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장홍석: 경상남도 그쪽일부.

김상준: 백두대간의 끝마무리 지역이니깐.

최: 참 요렇게라도 같이 한자리 앉아서 대화한 것만해도 우리 속이 풀어지는 거여. 아 우리 부모 없어져버리고 고생고생한거 생각하면 피눈물나지요. 말로 표현 못해요.

안: 순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돌아가신게 언젠니까?

장: 여수쪽에는 한 일주일내에 막 주닥거리버렸고. 순천은 상당히 기간이 길었제. 빨치산 산 속에서 숨어서 늘 민간인들 괴롭히고, 반란군들은 실은 민간인을 별로 안 죽였는데, 경찰이나 군인들은 그 사람들이랑 동조했다고 같이 빨갱이로 몰아세운거여.

박희원: 그 당시에 보면은 경찰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랬고, 군인들은 양심이 좀 있었어. 민간인들을 절대 그렇게 못해.

김상준: 아무래도 그것은 그때 경찰은 일제 때부터 경찰 해왔었던 족속들이고.

최: 사실은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할 사람들이, 경찰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박: 말한마디라도 너무 혹독하게 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어.

김상준: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쪽까지 온 사람들이 죽이기도 했다...

안: 대구지역에는 대구지역 회장 얘기는 학생들이 또 많이 죽었제.

박희원: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내보라 그래서 반질반질하면 일한 놈 아니요, 글자나 배운놈이란 말이요. 너 뒀냐 그러고 고놈이 조진 거라. 그래가 끌고가고 죽여버리고.

안: 학생들이 어떻게 왔는가. 서울이나 이런데서 학생을 모아왔다가 전쟁 후에 많이 죽었거든요.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6.25 일어난 후의 일이거든요.

안: 아직 못 내려왔을 직에, 부산까지도 못 내려왔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게 6.25 일어난 후 20일 후에 돌아가셨거든. 전방에서는 6.25 일어났고. 시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남로당 수괴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수상이면 박헌영이가 부수상이라. 박헌영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라디오에서 연속극으로 방송할 때 들었는데, 김일성이한테 '전쟁만 일으키라. 일으키며는 남한에는 공산당원이 많아갓고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적화통일 된다.' 이거를 전쟁 중에도 엄청나게 대남방송을 했는기라. 하니까 미국놈들하고 정치인들이 들어보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구 서울, 강화지역이나 일산지역에 주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북땅이 됐다가 남한땅이 됐다가 그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이밑으로 내려오면서 부라부라 막 죽어나간거예요. 즉 말하자면, 전방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후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전방에서 막 밀리는 판에 박헌영말 처럼 이진 마 완전히 적화통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미국놈들이 후방에 말하자면 보도연맹 막 사살해버리는 기라. 불리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민들은 보도연맹도 아니라예. 저녁에 도로로 나오라 그래서 머슴이든, 뭐든 싸그리 나오면 다죽여버린기라. 죽인 숫자를 복원해야 되는기라. 그렇게 됐으니까 억울한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로.

최: 노상 이것이 민간인들이 못당할 일을 당해요.

안: 손가락질만 해도 바로 죽여버립니다, 까짓거.

박희원: 너 이사람 아냐 해서 안다고 하면 싹 죽여버렸대. 전부다. 이사람 봤냐? 그러면 어디서 찍혀가지고 끌려댕기면서. 아 그놈이 한두번 댕긴 놈이요? 온 마을마다 다 밥 얻어먹고 돌아댕긴 놈이. 안면이 다 있지. 뽕소릴 한다고, 조지고 그러니까. 결국 지도 못살면서 그러구 댕겼다고.

안: 보도연맹도 동장들이 도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동장들이 이름 적어놓고 찍어버리면 다 보도연맹 되뿌린다니까. 본인이 보도연맹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죽는기라.

최: 자기 재산은 써서 주라 그래요. 자기 계약서를.

장: 말하자면 경찰이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산것처럼 계약서를, 판것처럼 해주라 이거여. 나가 인제 살라고.

최: 목숨이 더 중한게 다 썼다그라네.

박: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셔야 되는데.

최: 몇 년 안가면 그분들이 다 없어지죠. 그 증언들이. 지금 77살인가, 먼저 와서 나 처음 그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 부모도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개가를 다른데 가서살고 계시지만해도 너그 아버지 돈만 갖다 주면 살았다 그래요. 데려가라고 그럴 바에야 내보내줘야 할 것 아니요. 돈 주라고 안내보내주는 거여.

박희원: 데려가라 그말은 돈가지고 오느라 그 소리여.

최: 근디 우리아버지 형제간도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을에서 반죽음이 되있어도 뭐 갈 사람이 있어야지. 또 가면 사람이 금방 죽고 금방 죽고 그렇게 겁이 나서 못가죠. 더군다나 또 옛날에는 수백리를 걸어서 가야되잖아요.

박희원: 나 경우는 지서에 가서 학살을 당했어.

안: 유족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순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장: 유족?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될건디. 우리동네 그리 많이 죽었어도 하도 이 자리가 내 부모 내 형제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객지에 다 가버리고 없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은 실제 유족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지고 가빠고.

안: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동네마다 죽은 사람이 몇 명, 어느 동네에 몇 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다 안다구요. 내가 조사하니까 대번 나오드래니까. 어느 동네 몇 명, 어느 동네 짝 나와.

### ● 순천 유족, 여수 유족, 광주 이재동 인터뷰

# 여수 김화자 총무님 인터뷰(선교회 지하 방안 벽에 붙어 앉아서 말씀하심.)

김화자(BS):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부분적으로 개개인의 각자 그 가정에서 겪었던 거, 그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애길 할수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아버지도 없고, 삼촌도 없고 우리 집엔 남자가 하나도 없고. 할머니하고 고모들이랑 살다가. 난 어렸고. 살면서 힘드니까 할머니가 고모들 앉혀 놓고 울면서 '물에 빠져 죽자.' 이 속에서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안 나는 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고모 셋 이렇게 살아왔나 봐요. 다복했겠죠. 시골에서. 꽤 중간부농이고 일꾼도 두고 살았고. 그 일이 난거는 난 모르죠. 내가 47년에 나가지고 48년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렵듯이 아는 게, 내가 기억한 게 세살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구에서 돌아가셨대요. 아주머니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텐트를 쳐놓고 모여있는데, 벽 같은 데 구멍이 있었어요. 불이 빨갛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판을 하나 쪽 밀어 넣어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텅굴면서 너희 아버지 저기 들어간다고 막 오열하면서 막 텅굴었어요. 세 살 때 일인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텐트 속으로 짚을 틀어가지고 깔고 앉더라구요.

거기를 나도 갔어요. 어떤 아이가, 옛날엔 쌀을 튀밥을 튀겨가지고 그게 과자에요. 그걸 날 노파 주더라구요. 그게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걸 느낀거구. 또 얼마 있으니까 아버지 첫 제사라고 마당에다 천막 쳐놓고 음식 차려놓고 막 울더라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먹은 밥이라고 아버지 밥그릇에다가 나를 먹으라고. 그건 한 네 살쯤이었겠죠. 그랬고 다섯 살이 되면서 어머니가 재혼해 가느라고 외숙모들이 들어와서 이불 보따리 큰 거 이고 내가 막 울면서.. 할머니가 우시고 고모도 울고 엄마가 곱게 입고 울고.. 그러구 나서 할머니하구 고모하구, 일꾼하구 그렇게 죽 살아왔죠. 살아오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사는 그 경험은 그것 뿐이에요.

김희철: 그 천막에 구멍에 들어간 건 아버님의 시신이..?

김화자: 그렇죠. 화장을 해 온거구. 그게 화장터 구멍이었나봐요. 세멘 벽, 커다란 벽에..

김희철: 그게 인상이 너무 강렬하니까 세 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남으셨나 보죠?



김화자: 왜냐면 할머니가 갑자기 붙들고 너희 아버지 저기 들어간다고 막 우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 봤나봐요.

Q : 실례지만 아버지 직업이?

김화자: 농사를 하시면서도 일은 안 하시고, 일꾼이 있으니까. 그냥 농사를 좀 도우면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일도 안하고 깨끗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 대신 마을에 술을 빚어 놓고 상감이 와서 그걸 들키면은, 또 싸움이 나면 그 일이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면 그 일이 해결이 안돼서 우리 아버지가 오면 그 일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와야지 해결이 되고 그런 일만 했지 뭐. 농사만 농사만 진 것도 아니고. 삼촌은 학생이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을 좀 했는 모양이에요. 삼촌은 전혀 아니었고 학생인데, 중학교 마치고 대학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여수시내에서 붙잡혀 가지고 오동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 줬는데, 맘놓고 여수시내를 들어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여수에서 난리가 나니까 아들 찾으러 간다고 가니까, 재에 가니까 불이 펴핑나니까 가서 삼촌을 찾아 가지고 그 삼촌이 공부하던 하숙집으로 가는데 그 방범대원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 삼촌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삼촌이 '어머니 돈 있으면 이 사람 좀 주면 날 놔줄건대', 그땐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영겁결에 가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뺄려 간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수건으로 눈 묶어 가지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봉산리 곳에 가서 세추력인지 다섯 추력인지 가가지고 총을 뽕뽕 쏘는데, 삼촌은 일곱번을 쏘도 안 죽어 가지고 여덟번만에 죽었는데, 그 총을 쏘기 전에 하고싶은 말 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래부르고 뭐 무슨 소리하는데, '어머니 저 공부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못 갚고 죽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 경관들이 이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총을 그렇게 일곱 번이나 맞고, 안 죽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남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먹밥을 해다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우리 삼촌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 않았다는 걸 들었고. 그렇게 삼촌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 가담이 좀 됐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붙잡혀 가고 그 순간에 삼촌은 피신을 했나봐요. 외가 집으로 피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삼촌이 죽었고 우리집은 불태웠고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얼마나 매를 쳐가지고 고춧가루물을 끼얹고 저 고리가 무명으로 겹으로 해입은 저고리가 동강이가 나가지고 옷이 다 속옷까지 치마고 다 찢어지고 부어 가지고 옷을 벗질 못해 가위로 찢어 가지고 다 벗겨내고. 이런 일도 있었고. 얼마나 맞고 감금돼 있었나봐요. 그러구서는 아버지가 숨어있는 데, 순경들이 마을에 와서 이장을 붙들고 이 사람을 안 찾아 내놓으면 이마에다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이장인지 동네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 가지고 와 갖고 넘긴 거예요. 아버지가 자순지 뭐지. 일단은 면사무소에 가 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대구로 넘어가 가지고 대구에서 3년 있다가 6.25가 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김희철: 자기 어머니가 잡혀가셨으니까 자수를 해서 대구로 끌려가신 건가요?

김화자: 우리 어머니 잡힌 거 하고는 상관없이 마을 사람이 가서 우리 할머니를 앞세우고 외가 집을 찾아간거예요. 그 연고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붙잡혀 가니까 엄마는 나왔겠죠. 저는 그 동안에 동네 어머니들한테 젓을 얻어먹고. 어머니가 갈혀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대구에서 돌아가서 가지고. 그때 내가 세 살 때 기억했던 거. 화장을 해 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었고, 그러다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오촌이 우리 집, 밭, 논, 산 다 가져가고 저를 보약 먹여주겠다고,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집도 문닫아 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김희철: 봉산리에서 한 세트럭 정도, 사람들이 다 실려서 세트럭 정도요?

김화자: 거 가니까 봉산리라는 곳에 바위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조금 골짜기 있는 곳에다가 그 밭에는 아주머니 시켜가지고 파라 그래 가지고 산 사람을 거기다 넣고 총을 뽕뽕 쏘가지고 거기다가 넣가지고 기름 끼얹고 불을 질러놓으니까 부모 형제들이 코 밑에서만, 거기는 못가고. 총을 겨누고 못오게 하니까. 밑에서 들으니까 배가 터지고 골이 터지고 펴핑펴 소리가 났고. 연기가 났고,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고 며칠동안 연기가 며칠을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희철: 세트럭 정도면 거의 백여명 정도 됐겠네요?

김화자: 그랬겠죠. 그날뿐 아니라 그 골짜기에 그 부근이 몇 차례를 그랬나봐요. 이번에 저번에 여수에 지역사회연구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을 밀고 학교를 지었는데, 운동장에서 비만오면 뼈가 솟아 올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김희철: 그 학교가 지금 있죠, 학교 이름이?

김화자: 구봉 중학교.

김희철: 그 삼촌이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김화자: 만 열 여덟살.

김희철: 고등학생이었네요.

김화자: 그렇죠. 중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쯤. 만 열 여덟살이었죠. 학교에서 급장쯤 하고 그랬대니까. 제가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올 여름에, 올 봄이었나. 그랬더니 그 근거를 다 없앴더라고.

김희철: 그 학살지에는 구봉중학교라는 데가 있고

김화자: 또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그 봉산리가 봉산동으로 변했어요.

김희철: 그 삼촌 다니시던 학교 이름이?



김화자 : 여수상고. 예. 지금은 정보고등학교로 바뀌가지고. 컴퓨터 그 '정보'. 그 학교가 지금은 여천으로 이전해 왔어요. 이사왔어요.

김희철: 지금 여수유족회 총무님이시고, 총무님 성함이?

김화자: 김 화 자, 꽃 '화', 아들 '자'.(연세가?) 만 54세.

(사건당시에는 한 살?) 예, 1살.

김희철: 그. 현장 같은 데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학살지가 지금 사시는 곳하고 가까우세요?

김화자: 예, 면만 좀 다르지.

김희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족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그런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유족분들이 있지만 유족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사건 이후에 유족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김화자: 제가 계속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있었을 때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자건 남자건 알기만 하면 오빠라 하던지 언니라 하던지 그렇게 하고 붙들고 살고 싶어 가지고. 정에 그리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일로 한번 울음을 내기만 하면 끝이 없었어요. 울음이 끄치질 않아요. 그랬는데, 98년도에 텔레비전에 자막으로 한번 흘러갔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 준비할 적에. 그때부터 알게 되가지고. 와~ 정말 숨이 내쉬어졌었어요. 숨도 못 쉬고 살았다고 봐야죠. 저 깊~은 가슴 속에서 정말 제대로 숨이 쉬어졌었어요.

항상 여기가 답답하고.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정신적장애를 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심하게 이걸 생각하면 창란기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제가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왜, 왜 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풀리질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어떻게서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건 없지만 일본, 소련 미국 이런 걸 다 생각을 해 봤어요. 아휴(한숨). 그래봐야 나 혼자 생각이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에 그 자막을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저런 사람이 이런.. 그 여순 사건이라는 말 자체조차 텔레비전에 올려졌다는, 그 자막으로나마, 이게 너무 보람이 되고 큰 희망이 되었고. 뭐랄까 정말 그 암흑 속에서 뭔가 찾고 싶고 누구를 붙들고 싶고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 마음, 희망.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뭔가를 알고 싶은 희미한 그 가닥. 그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제 발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또 당시, 그때와 당시 또, 남은 우리마저 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러진 않을까 이런 거 세밀하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소장님이 서울에 오서 가지고 국회에 세미나 있거나 저도 바쁘고 힘든 중에도 계속 쫓아

다녔었어요. 국회 소 회의실 세미나, 변호사님 기자회견, 프레스 센터, 세종문화회관 그런데를 계속 쫓아 다니는 거예요. 여수에서 모임있다고 할 때, 계속 서울에서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오시더라구요. 그때도 한번도 안 빠졌어요.

김희철: 98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된 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프로였나요?

김화자: 예, 예. 그건 MBC에서 했는데, 거기는 지역이라서 MBC가 잘 안나왔어요.

(그게 여순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였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억울한 게 재산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저는 오고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었죠.

김희철: 이제 삼촌이 맨침에 돌아가셨고?

김화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그 중간에 돌아가셨나요?) 그 후에. 고모들도 결혼하고 (어머니는 재혼?) 그렇죠, 제가 다섯 살 때. 만 네살 때 갔죠.

김희철: 어머니 재혼 하셨으면 어떻게.. 같이 가셨나요?

김화자: 저는 할머니 가시고, 가신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남았는데, 고모들도 결혼 하니깐. 할머니는 양자를 세워달라. 할머니하고 저하고 양자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오촌은 살림이 너무 욕심이 나니까 양자를 안 세워 주고. 전부 끌고 간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병은 들어있지 보따리 싸가지고 나돌아다니고. 저는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오촌 당숙모가 (김희철: 오촌집 당숙모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호적이 없어요. 호적을 그 5촌 당숙 앞으로 실려있어요, 제가. 막내 딸로. 우리 아버지는 호적이 완전 말소가 되가지고 구등분으로 밀려나 있고. 그런것도 제가 다 찾아 봤어요. 그 오촌집에 가 가지고 공부 가르쳐주고, 시집 보내주고, 뭐 보약 멕인다더니 그런 건 전혀없고, 일만.. 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책을 써도.. 뭐, 아침 새벽에 5시쯤, 깜깜할 때 걸어가다가 돌에 발이 채여가지고 피가 나고 찢들거리고 따라댕기고. 하루종일 땀벌레. 밤 깜깜할 때 팔, 콩 따가지고 보따리 큰 거를 이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방아 찧어 가지고 밥해라 그러면 열 두 살 먹어가지고. 방아 절구통은 크죠, 키는 적죠. 방아를(방아 찧는 제스처) 이렇게 찧면 가슴이 다 뺏겨지고 손에는 못이 다 백히고. 방학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절대 안 가. 엄마 집에 살게해줘. 여기 좀 살게 해줘.'(울먹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설움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랬느냐고 할머니들이 제 손목잡고 우시고(울먹이면서) 견디다 못해 그 후로 서울로 갔죠.

김희철: 죄송한 질문이지만,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계속 살아계시죠? 어머니하고 연락은?

김화자: 옆에 있어요. 같이, 면은 다른데, 왕래하고 제가 덕을 많이 보죠.

김희철: 그러니까 어머니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변을 당하신 거구, 남동생이 돌아가신 건가요?



김화자: 시동생이죠. 예, 시동생이죠. 어머니도 같이 일해서 동생을 가르쳤죠. 형수니까.

김화자: 전 이 명예회복이 되면, 보상. 보상도 물론이겠지만, 잃어버린 땅, 우리 집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만들어 놓은 논, 밭 찾고 싶어요. 그 오촌이 지금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떼서 팔아먹고, 전부 그랬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김희철: 동산리에 한 백여명이 가서, 또 하루 뿐만이 아니라 연일...

김화자: 산이 이렇게 있는데, 능선있고 골있고 (손으로 골모양 나타내며) 능선있고. 그 골짜기마다 수없이 그런 일이 자행이 됐답니다.

김희철: 생존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김화자: 생존, 그런 소린 못 들었어요.

김희철: 목격자가?

김화자: 목격자야 그 당시에 많이 있었겠죠.

김희철: 그런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가요?

김화자: 그거는 저는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니까.

김희철: 그 얘기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고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김화자: 살아 오셔서 얘기해 주셨다는 분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뿔뿔이 가서 추력에 싹고 거기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하라고 그런 거였었고 그냥 무슨 뭐 시간을 두고 뿔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즉시 그냥, 가서 그냥 처형을 했나 보드라구요.

김희철: 아까 그 삼촌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신거죠?

김화자: 그 경찰관이 얘기를 했겠죠. 아깝다고. 아깝다는 얘길 했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소리했고, 총을 일곱 번을 쏘았다는 소릴 했고. 민간인들은 코 아래에만 있고 그 위는 못 오게 했대요. 그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동네사람 누군가가 누가 주먹밥을 해다 줬대요, 거기를.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받아서 먹었대요. 삼촌은 안 먹었다고.

김희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해진 거네요?

김화자: 네. 굉장히 잘 생겼고 착했고.

김희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김화자: 저는 그러니까 살면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지만, 그 시대 그 부근에 경찰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그냥 추측으로만, 그랬고. 제가 어릴 때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어떤 벌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웃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리석었고 더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알았어요.

김희철: 구체적으로 그런 걸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김화자: 없죠.

김희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가해잔데 그때 얻은 재산으로 지금까지 땀땀거리면서 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김화자: 저는 웬가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거를 알려고 했으면 알았을 거예요. 저도 파고드는 데는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가지고 떠난 거예요. 지금도 고향에 가면, 그 고향이 굉장히 그리우면서도 그 고향 이 싫어요. 찬바람이 돌고, 제 가슴에 찬바람이 계속 돌아요.

김희철: 오촌집 당숙집에서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김화자: 12살 때 가가지고 엄마한테 좀 갔다 거기 있다 일단 스무살때까지. 만 19세까지.

김희철: 서울 수유리로?

김화자: 수유리로 온게 아니고 영등포에 대림동에. 옛날에는 국영기업체였어요. 한국 모방, 그전에 경성 모방이라 했었나? 그럴 때 제가 산업선교회를 했었어요. 66년도에 와가지고, 양평동 양남동인지 어디로 왔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김희철: 수유리에서 오래 사셨는데, 여수 다시 내려가신 건 5년 전?

김화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김희철: 어떻게 다시 여수 내려가실 생각을?

김화자: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더 시켜야 되겠고. 서울 생활은 힘들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에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길 왔을까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주셨을까? 뻗긴 발도 육촌 오빠하고 반반 딱 노놉 갖고 서있는 거예요, 꿈에 보면.

Q: 여순사건이 반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다시 여순사건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19살까지 여수에 계셨으면 반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가해졌던 피해나 그런 건?

김화자: 반란군 그러면 철없는 마음에 반란군이 어디서 이북에서 쳐내려 와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한 줄 알았거든요. 지금 알고 보니까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군인이 그 반란군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빨갱이라고, 그 빨갱이 소리는 직접은 안 했지만, 오촌 당숙모, 제 호적상으로 어머니 되지만, 그분도 우리에게 핍박을 굉장히 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광주 방송국에서 저보고 친구들한테 따돌림당하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따돌림당한 거는 그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 어른들의 냉소와 정말 뭐랄까 내가 무슨 그런 무슨 좋지 못한 행동을 한 주모자인 것처럼 보고 말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또 다른 마을이라도 타성반이 사람이 그러는 거는 좋은데, 집안에서 집안에서 그런게 더 아팠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큰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싫은 거예요. 그리우면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날 붙들고 '너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 마을이 발전이 됐을 거다', 이런 소릴 하고. 집안에서는 뭐라 하나면 '너희 아버지 살았으면 자기들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릴 했고,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 가당치 않은 말을 해요. 그 때 당시는 그렇게 냉소하던 사람들이 왜 지금에 와서 저런 소릴 하는가. 또 내가 보고 느낀 거는, 그렇게 참담한 소리하고 그렇게 퍽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 다 나가고 나면은 그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나 그걸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 속으로 그래, 남 잘되는 걸 좋아하고 서로 같이 좋아하면 서로 좋지만, 남 못되는 거 즐거워하고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 그래,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으로 보거나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느꼈다는 거 뿐이에요.

## 8. 전남 기타지역



### 1. 학살 시기 및 장소

시 기 : 1949

장 소

1) 화순군 춘양면과 이양면

2) 보도연맹 : 광산구 지평동, 나주군 왕곡면 온수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골짜기, 함평군 3개 지역(나산면 구산리 냇태, 학교면

북천리 얼음재, 함평읍 옥산리 계두산 등), 장흥군 수문포, 광주시 지원동

### 2. 가해자 및 당시 상황

여순사건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이른바 '빨치산' 혹은 '반란군'으로 불리는 좌익 무장세력들이 여러 산중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빨치산'을 도와주거나 지지했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부대의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이 학살당한 경우이다.

### 3. 피학살자 현황

1) 보도연맹 : 해남지역의 50여 명에서 나주지역의 3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 4. 학살 유형

1) 한국전쟁 이전 빨치산 토벌시기의 주민 학살

대체로 1949년의 상황이며, 현재 조사된 지역으로는 화순군 춘양면과 이양면 등이 있다. 본 조사팀의 조사지역이 전남 동부지역을 제외한 상태이고 여순사건



의 파장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많지 않다.

#### 2) 보도연맹사건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로 인해 널리 알려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거의 모든 조사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7월 23일 광주에 인민군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 동안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였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보도연맹사건 관련 지역은 광산구 지평동, 나주군 왕곡면 온수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골짜기, 함평군 3개 지역(나산면 구산리 냇배, 학교면 북천리 얼음재, 함평읍 옥산리 계두산 등), 장흥군 수문포, 광주시 지원동 등이다.

#### 3) 군·경 후퇴시의 학살사건

광주 이남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군·경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해남과 완도 등지에서는 1950년 7월말에서 9월 초에 이르는 동안 일명 '나주부대'로 불리는 경찰부대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 환영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증언한다. 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들 역시 군·경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하였다.

#### 4) '인민공화국' 치하의 학살사건

이 시기에는 이른바 '반동분자'라는 이름하에 일제때 경찰이나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나타난다.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그동안 계속 '기억'되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사가 쉽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학살은 소규모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장흥군 유치면 대리를 들 수 있다. 또 광주에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많은 우익인사들이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 5) 군 작전중의 학살사건

인민군이 광주·전남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는 1950년 7월 23일 경부터 동년 9월 28일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이른바 '빨치산'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며, 이들과 토벌대 사이의 전투로 사실상 한국전쟁 전기간에 걸쳐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구례 지리산, 광양 백운산, 화순 백아산, 담양의 가막골, 장흥 유치의 국사봉, 영광 불갑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지역과 인접해 있는 시·군 지역들, 즉 나주, 화순, 함평, 장성, 담양, 장흥, 보성 등이 포함된다. 당시 이들 지역에서는 밤

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빨치산'들이 출몰하는 관계로 주민들은 군과 빨치산 양쪽 모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특히 집단학살과 같은 사례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빨치산' 보다는 군부대에 의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 조사중인 지역들 중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곳은 화순과 담양, 함평, 나주, 장성, 장흥 등 거의 모든 조사지역이 망라되어 있다.

#### 6) 부역자 색출과정에서의 학살사건

군 작전이 전개중인 곳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인민공화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살 유형은 시기적으로 장기간(1950년 말부터 1952년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군인이나 경찰, 혹은 우익 단체 등이 거주지를 찾아와 학살한 경우도 있지만, 경찰서 등으로 불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현재 조사중인 지역중에서는 나주군 봉황면, 장흥군 장평면과 유치면, 담양읍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학살유형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보도연맹사건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우연적인 현상이거나 현지 경찰의 판단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학살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학살된 사람의 수 역시 최하 해남지역의 50여 명에서 나주지역의 3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또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 따라 1~3 곳의 장소에서 포승이나 철사줄 등으로 묶인 채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이들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점에서 좌익세력 중 전향한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지역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적 위주의 조직사업 과정에서 가입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후퇴과정에서 발생한 해남과 완도지역에서의 주요 학살사건들은 보도연맹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사건들은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속칭 '나주부대'의 개별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통해 인민군 환영대회를 준비하라고 연락한 다음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가 환영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며, 피해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완도지역의 경우 피해 주민들이 남해안의 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조사 역시 쉽지 않다. 당시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은 한 유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완도에서 명단이 파악된 피학살자만 해도 100여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본 조사팀의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해남지역의 피학살자 역시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주



부대에 의한 피학살자는 최소한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군 작전중의 학살사건들은 주로 '빨치산'의 주요부대가 있는 산악 인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학살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군인들이 이들을 죽인 다음 '공비'를 토벌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문서 고에서 발견된 함평지역의 피학살자 524명은 모두 군부대의 작전과정에서 '공비'로 토벌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알려진 함평과 나주 세지면 뿐만 아니라 담양군 대덕면 산정리, 장성군 황룡면, 그리고 나주군 세지면과 다도면 암정리 등 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상자 수도 수백 명에서 10명 미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5. 증언 및 사례

그외 광주시 지원동 지역에서 일부 유족들이 지역 수준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광주·전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 9. 화순지역

### ● 남면 다산 마을의 학살사건

#### 1. 학살 사건 발생

- 1) 일 시 : 1950. 11. 17 18:00(땅거미 질 무렵)
- 2) 장 소 :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 마을회관 및 마을 앞 논,

####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11사단 20연대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일명 장소위 부대)의 소속 국군에 의해 사살됨.

2) 당시 장소위 부대, 꽤꼬리 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 20 여명을 집단 사살함.

3) 무차별 사살후 국군들이 물리간후 유족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매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같은날 제사를 모시고 있음.

####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11사단 20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박기병)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

#### 4. 피학살자 현황

- 1) 피학살자 인원 : 23명(유족신고 인원)
- 2) 피학살자 구성원 : 청년 23명(최고령자 41세, 최소연소자 17세)
- 3) 피학살자 성격 : 민간인

#### 5. 유족회 활동내용



##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당시 학살된 마을 청년중 유일하게 생존한 정대섭(현 다산마을 거주)에 의하면

• 당시는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하였는데, 1950. 11. 17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 청년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함.

• 전일에는 인민부대 「동북하씨」가 마을회의를 주관한바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함.

○ 동마을 이장 오옥탁(남 62세 당시 中1학생)에 의하면,

• 당시에 소위 장소위 부대, 꿩꼬리 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 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들을 학살하였다 증언함.

2)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 청원 및 이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반응과 답변 내용

○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1.

○ 정부에 진상조사 건의후 회신

- 행정부, 국방부 :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후 처리 계획(공문사본 별첨)

3)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내용

○ 국방부에 자료요구('99. 8. 24)- 국군 20연대 6. 25전쟁시 작전기록 사본과 화순지역 작전 상황일지

○ 회신없음.

4) 지방자치 단체나 의회의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

5) 유족회 구성 : 미구성

## ● 도암면 도장리의 학살사건

## 1. 학살 사건 발생

1) 일 시 : 1951. 3. 17. 07:00(이른 아침)

2) 장 소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앞 논(일명 도포뽕이)

##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국군(구체적 부대명칭은 알수 없으나 증언에 의하면 일명 「장소위부대」 소속 국군이라 함.)

2) 1951. 3. 17 새벽 마을에 진주한 국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살려면 모두 나오라”하여 영문도 모른채 마을 앞에 모인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여 20여명이 사망함.

##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부대명칭과 지휘관 알수 없으나 「장소위 부대」 소속 국군으로 전해움.

## 4. 피학살자 현황

1) 피학살자 인원 : 20여명(유족 신고인원)

2) 피학살자 구성원 : 노약자4, 부녀자3, 장년13명

3) 피학살자 성격 : 양민

## 5. 유족회 활동내용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현 마을이장 김범술의 증언에 의하면, 51. 3. 17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 앞 논(일명 도포뽕이)에서 20여 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젊은 부인이었던 나순례(현재 도장리 거주, 77세)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살려면 다 나오라”고 해서 철길이나 도로



를 보수하려한지 알고 꿩이나 호미 등을 갖고 나왔는데 군인 가족이나 경찰 가족은 한쪽으로 나오라 하고 윗 쪽에서 아랫쪽으로 무작위로 총을 쏘았음.

- 2)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3
- 3) 진상규명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내용 : 남면 다산마을 학살사건과 동일
- 4) 헌법 소원 : 미 제출
- 5) 피해보고서나 책자 발행 : 화순군의회 「진상조사 보고서」(별첨)
- 6) 언론보도 일지 : 별첨 #4
- 7)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
- 8) 유족회 구성 : 미 구성

6. 학살희생자 명단

총 80명

- 남 면 23명   ○ 도암면 33명   ○ 춘양면 17명
- 이양면 6명   ○ 한천면 1명

□ 남면 - 23명

<사망일시 및 장소 : 1950. 11. 17 남면 다산리 마을앞>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강래원   | 21. 6. 13 | 남  | 승주 송광 우산 921  | 강성찬 | 조카 | 광주시 소태동 551-6                   |
| 2    | 강동원   | 23. 1. 14 | 남  | 승주 송광 우산 921  | 강성찬 | 조카 | 광주시 소태동 551-6                   |
| 3    | 김재환   | 30. 9. 21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455 | 김재영 | 제  | 인천시 간석1동 293-1<br>삼우④ 1동 304    |
| 4    | 오연석   | 13. 12. 5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671 | 오재만 | 자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br>벽산④ 104-702     |
| 5    | 정성모   | 24. 9. 30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43 | 최장수 | 처  | 화순 남면 원리 119                    |
| 6    | 정원면   | 15. 7. 26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671 | 서애순 | 처  |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br>237-1 금호④104-803 |
| 7    | 오판식   | 24. 3. 24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157 | 오병진 | 제  | 광주시 서구 양림동<br>24                |
| 8    | 박병현   | 29. 11.15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43 | 박점남 | 제  | 광주시 북구 용봉동630<br>유창④ 1-203      |
| 9    | 여남현   | 29. 9. 7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665 | 여태현 | 제  | 경기도 안양시 동안<br>호계1동 956-51       |
| 10   | 전기중   | 32. 4. 20 | 남  | 화순 남면 남계리 134 | 전영백 | 조카 |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br>701-15          |
| 11   | 정원섭   | 29. 1. 19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62 | 정대섭 | 제  | 광주시 동구 지산2동<br>449-4            |
| 12   | 김기수   | 23. 3. 10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70 | 김용진 | 조카 | 화순 동면 오동리<br>110-1 나동 305       |
| 13   | 김형수   | 33. 10.10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70 | 김용진 | 조카 | 화순 동면 오동리<br>110-1 나동 305       |
| 14   | 서재열   | 19. 9. 25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467 | 서종규 | 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br>1-65             |
| 15   | 서병수   | 27. 6. 24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665 | 서종규 | 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br>1-65             |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6   | 정진호   | 27. 8. 2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452  | 정오섭 | 자  | 광주시 서구 양림동 24-98          |
| 17   | 정진    | 31. 5. 15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452  | 정오섭 | 조카 | 광주시 서구 양림동 24-98          |
| 18   | 김문수   | 29. 12. 19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66  | 김상수 | 제  | 화순군 읍 만연리 237-1급호㉠104-803 |
| 19   | 조광현   | 23. 2. 10  | 남  | 화순 북면 수리 408   | 조의식 | 자  | 서울시 성북구 길음2동 635-71 14/8  |
| 20   | 이영재   | 24. 3. 16  | 남  | 화순 남면 용리 105   | 이정석 | 자  | 화순 남면 다산 460              |
| 21   | 오병열   | 13. 11. 13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168  | 오병문 | 제  | 화순 남면 다산 448              |
| 22   | 오재철   | 26. 12. 4  | 남  | 화순 남면 다산리 51   | 오삼탁 | 조카 |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 8/4        |
| 23   | 오재열   | 09. 2. 2   | 남  | 화순 이서면 월산리 432 | 오만애 | 자  | 광주시 동구 산수동 554-23         |

※ 당초 24명이 신고 되었으나 남면 다산리 정대섭은 부상자로 생존해 있기 때문에 제외함.

□ 도암면 - 33명

<사망일시 및 장소 : 1951. 3. 17 도암면 도장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형배용   | 24. 12. 6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79 | 형형구 | 자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179            |
| 2    | 형재수   | 31. 8. 18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68 | 형균태 | 제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184            |
| 3    | 김석용   | 34. 2. 21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08 | 나종남 | 시동생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11            |
| 4    | 김연순   | 16. 8. 24  | 여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08 | 나종남 | 동서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11            |
| 5    | 형순용   | 07. 11. 2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46 | 형시울 | 자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188            |
| 6    | 문상길   | 1894 5. 5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277 | 문경호 | 자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42            |
| 7    | 이애순   | 06. 10. 14 | 여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42 | 문경호 | 질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42            |
| 8    | 김복금   | 36. 2. 18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11 | 이병화 | 계모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28-2          |
| 9    | 김중기   | 25. 2. 3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97 | 김종찬 | 자   |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79            |
| 10   | 형학남   | 20. 4. 7   | 남  | 화순 도암면 운월리 384 | 형창섭 | 자   |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 309            |
| 11   | 김강    | 34. 6. 25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283 | 김종두 | 제   | 광주 서구 쌍촌동 452-2 일신㉠103-304 |
| 12   | 형남관   | 23. 11. 9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91 | 형광호 | 자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191            |
| 13   | 김민동   | 05. 10. 12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13 | 김갑순 | 자   | 광주 남구 진월동 삼익㉠ 301-604호     |
| 14   | 김정남   | 27. 12. 29 | 여  | 화순 도암면 도장리 313 | 김갑순 | 제   | 광주 남구 진월동 삼익㉠ 301-604호     |
| 15   | 형시화   | 10. 5. 11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84 | 형창욱 | 자   | 광주 남구 양림동 347              |
| 16   | 형김식   | 41. 1. 18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84  | 문달금 | 모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363-1          |
| 17   | 형기수   | 40. 1. 24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88 | 형철웅 | 질   |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317            |
| 18   | 형경복   | 1900 9. 16 | 남  | 화순 도암면 도장리 188 | 형철웅 | 손   |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317            |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9   | 형시남   | 19. 1. 5   | 남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 형신옥 | 질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1684번지 |
| 20   | 김영창   | 21. 11. 21 | 남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97 | 김영철 | 종형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2115번지 |

※ 당초 22명이 신고 되었으나 도장리 114 형정례와 도장리 166 형병열은 부상자로 명부에서 제외함.

<사망일시 및 장소 : 1951. 2. 10 도암면 용강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김영태   | 19. 7. 9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3 | 김영두 | 자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3 |
| 2    | 정도석   | 33. 4. 25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33 | 정 만 | 질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33 |
| 3    | 정화실   | 1900 8. 12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33 | 정 만 | 손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33 |
| 4    | 김상호   | 28. 11. 9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9 | 김동호 | 제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9 |
| 5    | 김광호   | 21. 12. 2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9 | 김동호 | 제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79 |
| 6    | 김현호   | 28. 11. 5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44 | 김남호 | 종제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333 |
| 7    | 김석이   | 03. 9. 16  | 남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332 | 김영철 | 손  |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332 |

<사망일시 및 장소 : 도암면 등광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김익환   | 09. 11. 23 | 남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171 | 김준식 | 자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171 |
| 2    | 문철수   | 16. 1. 2   | 남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349 | 문병용 | 자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389 |
| 3    | 김익영   | 07. 11. 28 | 남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383 | 김길영 | 질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383 |

<사망일시 및 장소 : 기타 도암지역 희생자>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염만섭   | 1900 4. 17 | 남  |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61  | 염규정 | 자  |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61  |
| 2    | 강철원   | 23. 4. 28  | 남  |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261 | 강기춘 | 제  | 화순군 도암면 호암리 684 |
| 3    | 김기환   | 1891 5. 7  | 남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396 | 김주남 | 자  |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147 |

□ 춘양면 - 17명

<사망일시 및 장소 : 6. 25 동란시 춘양면 석정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소               |
| 1    | 남길조   | 18. 6. 10  | 남  | 화순 춘양면 석정리 299 | 남은기 | 제  | 화순 춘양면 석정리 299   |
| 2    | 김재평   | 36. 12. 20 | 남  | 화순 춘양면 대신리 590 | 김재우 | 형  | 화순 춘양면 석정리 282   |
| 3    | 김군봉   | 06. 8. 2   | 남  | 화순 춘양면 변천리 146 | 김인걸 | 자  | 화순 춘양면 석정리 365-9 |



<사망일시 및 장소 : 6. 25 동란시 춘양면 변천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양양봉   | 27. 7. 30  | 남  | 화순 춘양면 변천리 16  | 양구봉 | 제  | 화순 춘양면 변천리 16     |
| 2    | 오동호   | 09. 1. 1   | 남  | 화순 춘양면 가동리 247 | 오치수 | 자  | 광주북구 임동 443-4     |
| 3    | 김동희   | 26. 7. 21  | 남  | 화순 춘양면 변천리 150 | 김재태 | 자  | 광주서구 화정 2동 771-10 |
| 4    | 강신철   | 19. 10. 13 | 남  | 화순 춘양면 가동리 59  | 강신길 | 제  | 화순 춘양면 가동리 59     |

<사망일시 및 장소 : 6. 25 동란시 춘양면 산간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이의옥   | 25. 5. 13 | 남  | 화순 춘양면 산간리 292   | 이의주 | 제  | 화순 춘양면 산간리 292   |
| 2    | 이종인   | 33. 5. 15 | 남  | 화순 춘양면 산간리 251   | 이상옥 | 질  | 화순 춘양면 산간리 251   |
| 3    | 이종욱   | 10. 3. 10 | 남  | 화순 춘양면 산간리 190-2 | 이상운 | 손  | 화순 춘양면 산간리 190-2 |

<사망일시 및 장소 : 1949. 9. 23 춘양면 용두리 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이병수   | 06. 2. 19  | 남  | 화순 춘양면 용두리 177 | 김순희 | 자부 | 화순 춘양면 용두리 178 |
| 2    | 박영주   | 1895 6. 14 | 남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11 | 정미녀 | 자부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11 |
| 3    | 정운효   | 19. 1. 15  | 남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04 | 정재규 | 조카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04 |
| 4    | 양동엽   | 24. 9. 7   | 남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15 | 이숙영 | 처  | 화순 춘양면 용두리 208 |

<사망일시 및 장소 : 여순반란이후 6. 25동란중 기타지역>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홍윤식   | 23. 1. 20 | 남  | 화순 춘양면 우봉리 343 | 홍성표 | 손  | 화순 춘양면 우봉리 343 |
| 2    | 문재봉   | 06. 10. 6 | 남  | 화순 춘양면 화림리 643 | 문제영 | 자  | 화순 춘양면 화림리 643 |
| 3    | 정일주   | 21. 8. 8  | 남  | 화순 춘양면 대신리 897 | 정익주 | 제  | 화순 춘양면 대신리 906 |

□ 이양면 - 6명

<사망일시 및 장소 : 1949. 3. 19 이양면 용반리 고암촌 앞>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정길채   | 08. 8. 6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21 | 정찬우 | 자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05   |
| 2    | 정월채   | 20. 6. 12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02 | 양희남 | 처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03   |
| 3    | 정병채   | 17. 12. 12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21 | 정인기 | 손  | 서울마포구 망원동 338-69 |
| 4    | 정임채   | 19. 4. 12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297 | 정찬상 | 질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04   |
| 5    | 정순학   | 08. 9. 13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22 | 문계남 | 자부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22   |
| 6    | 정동채   | '27. 3. 24 | 남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21 | 정홍채 | 제  | 화순 이양면 용반리 309   |



□ 한천면 - 1명

<사망일시 및 장소 : 6. 25 수복직후 오음리에서 사망>

| 일련번호 | 사 망 자 |           |    |               | 유 족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당시주소          | 성명  | 관계 | 주 소           |
| 1    | 조형섭   | 31. 1. 16 | 남  | 화순 한천면 모산리 15 | 조승섭 | 제  | 화순 한천면 모산리 85 |

7. 양민학살 피해신고 현장조사 결과

① 남면 다산리 다산마을

<피해신고>

○ 신고자 : 광주시 동구 소태동 551-6 강성찬등 24명

○ 신고내용

• 1950. 11. 17(금) 어둠이 갈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회관에 모여 있던 청년들 25명중(유일한 생존자 : 동 마을 거주 정대섭)이 소속미상의 군인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3-4명이 사살되었고 잔여인원은 마을앞 논으로 끌려가 동시 사살됨.

<조사결과>

○ 당시 학살된 마을 청년중 유일하게 생존한 정대섭(현 다산마을 거주)에 의하면

• 당시는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하였는데

• 50. 11. 17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청년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함.

• 전일에는 인민부대 「동북하씨」가 마을회의를 주관한바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함.

○ 동 마을이장 오옥탁(남 62세 당시 中1학생)에 의하면,

• 당시에 소위 장소위부대, 꺾꼬리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들을 학살하였다 증언함.

<조사에 임한 특위 위원들은>

○ 남면 다산의 경우 사상적 이념이 정립되지 않은 무고한 양민들을 국군이 집단 학살한 사례로 인정된다면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함.

○ 특히 20여명이 넘는 양민들이 동시에 국군에 의거 총살되었는데 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 잘못된 역사의 한 단면으로 피해자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결론지음.

②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등 4개마을

<피해신고>

○ 신고자 : 도암면 원천리 61 염규정등 35명

○ 신고내용

• 51. 3. 17 새벽 마을앞 논(일명 도포배비)에서 김연순(도장리거주, 1916년생, 여)등 20여명이 국군에 의해 무차별 학살당함.

• 51. 2. 10(음력) 김영태(용강리 1919년생, 남)등 7명이 당시 반란군의 강요에 못이겨 피난을 가기위해 마을앞에 모여 있던중 국군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진주하여 이들을 나누시 다도면 국사봉으로 끌고가 무참하게 학살 함.

• 51. 2. 22(음) 김익완(등광리, 1919년생, 남)등 2명이 마을 후산 에서 국군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총살당함.

• 도장리 168 형재수(1931년생, 남)는 1951. 2. 9 07:00경 마을주민 20여명과 함께 마을앞 논에서 부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상적 문제로 총살 당함.

<조사결과>

○ 도장리의 경우

• 이장 김범술의 증언에 의하면 51. 3. 17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앞 논(일명 도포배비)에서 20여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젊은 부인이었던 나순례(현재 도장리 거주, 77세)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살려면 다 나오라”고 해서 철길이나 도로를 보수하려한지 알고 팽이나 호미등을 갖고 나왔는데 군인가족이나 경찰가족은 한쪽으로 나오라 하고 윗쪽에서 아랫쪽으로 무작위



로 총을 쏘았음.

○동광리의 경우

• 국군과 반란군이 주야로 교대하며 마을에 진주하곤 하였는데 반란군에 밥을 해주었다고 국군이 진주할때마다 한.두명씩 사살되었음. 동 마을 거주 문병용 증언

○용강리의 경우

• 이장 김인채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야간에는 반란군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 마을 주민이 “비트”를 파놓고 숨어 살고 있었는데 국군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반란군에 가담하는것 으로 오인하여 동 마을 김영태 등 11명을 나누시 국사봉으로 끌고가 집단 총살하였다고 함.

<조사에 임한 특위 위원들은>

○도장리의 경우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확실하게 국군에 의거 집단 학살된것으로 인정된다며 보다 확실한 증빙자료를 계속 수집키로 하였으며,

○기타 마을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게 사살되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국군의 작전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음.

○그러나 좌우익 이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도 않은 시기에 마을주민간에 또는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서 오로지 생존을 위한 본의 아닌 행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 등을 확인하수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당시의 학살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어떤 차원에서든 정부에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명예를 회복해 줄 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음.

### ③ 화순군 춘양면 산간리등 6개마을

<피해신고>

○신고자 : 춘양면 석정리 245 남은기등 17명

○신고내용

• 춘양면 산간리 지역에서

산간리 292 이의옥등 2명이 6. 25당시 (일시미정)이삿짐을 싣고 광주로 가던중 화순읍 벽라교(현 남일관광앞)부근에서 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산간리 292 이의주의 1명신고)

산간리 190~2 이종옥은 경찰서에 간다고 나갔다가 가봉리마을 주변에서 총살당함(이상운 신고)

• 춘양면 용두리 지역에서

49. 9. 23(음력)가을 반란군에 의해 마을앞 철길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는데 국군들이 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근에서 보리갈이를 하고 있는 이병수(용두리 177, 1906년생)등 10여명을 불러 사건경위등을 물어본후 돌아가도 좋다고 해놓고 무차별 총을 쏘아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춘양면 변천리 지역

51. 5. 4일경 군인이 양양봉(27. 7. 30생), 오동호(09. 1.1생)를 조사할것이 있으니 나오라 하여 운주사 인근으로 끌고가 총살함(양구봉, 오치수 증언)

1951 2월 하순경 김동희(36. 7. 21생)가 가동리 뒷산에서 군인에 의거 총살당하였으며 (증인 김성환), 강신철(19. 10. 13)은 양곡리 2구 마을앞 도로에서 군인에 의거 총살당함(증인 강신길)

• 춘양면 석정리 지역

51. 11. 9일 동 마을 남길조(남, 18. 6. 10일생)가 우봉리에서 석정리로 가던중 군인에 의거 총살당함(증언 남은기)

51. 12월초 동마을 김군봉(남, 06. 8. 2생)이 석정리 시장부근에서 군인에 의거 총살당함(증언 김인걸)

• 춘양면 대신리 지역

동 마을 김재평(36.12. 20생, 중1년)은 당시 광주 조선대 부속중학교 1년에 재학 중으로 어른들은 피했으나 학생으로 죄가 없다며 피하지 않아 군인에 의거 총살당함.(증언, 석정리 김재우)

동 마을 정일주(21. 9. 8생, 남)는 작은택에 심부름 가던 중 경찰 사격에 의거 사망(증언 정찬욱)

• 기타지역

화림리 643 문재봉(06. 10. 6생, 남)은 1950 10. 1 자신의 밭에서 작업중 총살당함(증언 화림리 문제영)

우봉리 343 홍윤식(23. 1. 20생, 남)은 1949. 11. 18(음) 당시 부면장 박용근이 좌익분자로 오인되어 우봉리 뒷산으로 끌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하산하던중 경찰 사격으로 사망함(증언 우봉리 홍성표)

<조사결과>

○광주시 임동 443-4 오치수(39. 5 생)의 증언에 의하면 52. 5. 4경 여수 14연대 혹은 20연대(확실치 않음)국군에 의하여 운주사 부근에서 선친 오동호등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총살되었다 함.



○용두리 165 이숙영(여, 75세)은 49. 9. 23(음)사망한 양동엽(24. 9.7생, 남)의 부인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남편은 영농 작업중 군인들이 불리 나갔다가 총에 맞고 집에까지 피투성 이가 되어 돌아왔으나 “당신이나 잘 살아라”며 사망 했다함.

○석정리 김재우(26. 7. 5생, 남)에 의하면 51. 10. 10 09:00 경 능주주둔 국군에 의거 대신4구 뒷산에서 학생등 죄가없다며 피난하지 않은 주민 다수가 영문도 모른채 총살 당함(당일 제사 지내는 분이 40여명이나 된다 함.)

#### <조사에 임한 특위위원들은>

○춘양면의 경우 국군의 작전에 의하여 양민이 집단으로 학살되었다고 확정 지을수는 없는 사항으로

○여순반란 사건이후 6. 25 전쟁에 이르는 동안 뚜렷한 이념적 사상도 갖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반란군(좌익)에 동조 하였다가 또는 국군이나 경찰에 협조하는등 당시 상황에 따라 행동하다가 국군(또는 경찰)또는 반란군등에 의거 무고하게 총살 당한 사건이라 결론짓고

○격동기의 불우한 역사의 한 단면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있어선 안되겠다고 다짐 하면서 불행한 과거 이지만 진실을 밝혀 미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특위의 목적을 되새겨봄.

#### [4] 화순군 이양면 용반리

##### <피해신고>

○이양면 용반리 정길채(08. 8. 6생, 남)등 6명은 1949. 3. 19(음) 마을(고암촌)앞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됨.

○49년 여순반란사건 이후 반란군이 용반리에 들러 밥을 지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을 주민이 반대하여 마을 뒷산으로 도망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당시 이양지서에서 알고 곧바로 지서에 연락하지 않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정길채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마을앞에 모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정월채 (1920. 6. 12생, 남)등 5명을 사살함.

##### <조사결과>

○동 마을 정우채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양에 주둔하고 있던 20연대 국군들이 반란군에 밥해 주었는지를 조사한후 죄 없다고 했는데 당시 38

부대로 명성을 떨치던 벼락부대가 동네를 포위한 후 일방적으로 총살시켰다고 함.

○동 마을 정문채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마을이장 한용승이 지서 에 가서 마을주민들은 반란군들이 밥을 해달라는 것을 거절했다며 아무런 죄가 없다고 빌어 마을 주민 19명(호당 1명)이 지서에 서 교육을 받아 해결 될줄 알았다. 그런데 49. 3. 19(음)나무를 해 가지고 동네에 도착할 무렵 총소리가 콩알 볶듯이 난 후 달려가 보니 정월채 등 5명이 사살되었음.

#### <조사에 임한 특위위원들은>

○이양면 용반리 주민의 억울한 희생은 국군의 작전에 의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여순반란사건이후 6. 25전 사이 사회의 어수선한 시기에 국군이 반란군 토벌과정에서 생긴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라 결론짓고

○본 특위에서 조사 할려는 근본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식하고 역사를 바로 알고 기록보존 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음.

#### ※문헌에 의한 집단 학살 사례(참고)

##### □ 한국 전쟁사 9권(국방부)에 의하면

- 국립경찰에 의해 총 179명이 사살됨
- '53. 3. 14 22:50 이양면 두봉산, 형제봉 계곡 36명
- '53. 3. 15 02:00 이양면 형제봉 계곡 34명
- '53. 3. 16 05:00 이양면 매봉 26명
- '53. 4. 6 03:00 북면 백아산 일대 46명
- '53. 4. 15 17:00 청풍 깃대봉 37명

##### □ 화순군사(화순군사편찬위원회)에 의하면 1,945명 희생됨

- '50. 9. 末 화순읍 교리 저수지 32명
- '50. 10. 25 한천 오곡마을 뒷산 10여명
- '51. 10월경 춘양면 지역 양민 21명
- '51. 12. 5 ~ 10 도암면 지역 281명
- '49. 10월경 북면에서 50여명
- '50. 10 ~ '51. 4 북면에서 1,000여명
- '51. 7. 20경 북면에서 480여명
- '51. 7. 21 동북에서 10여명
- '51. 11월경 남면에서 주민 23명



- '50. 10. 12 동면에서 지서장등 20여명
- '50. 10. 24 동면에서 경찰등 18명

## 8. 조사결과 조치(계획)

### □ 양민학살 피해사례 정부차원의 조사활동 건의

○ 본 특위에서의 피해사례 조사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부부처에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의 일환으로 해방이후 6. 25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학살및 피해사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 피해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고 그 유족에게는 더 이상 불명예와 소외 의식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건의

• 건의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국방부 장관등

※ 건의문(안) : 별첨

###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사건」의 지속적인 진상조사활동 건의

○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 자체가 단 시일내 결과를 도출할수 없는 성질이므로 시간을 갖고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각종 연구기관및 사회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진실에 접근할수 있는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것임.

○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금번 특위 활동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과 시간에 구애 없이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 □ 청원인에 대하여 조사결과 회시

○ 청원인

- 남면 다산리 623 오옥탁외 37명
- 도암면 도장리 328-1 김범순외 67명

## 9. 양민학살 피해 조사를 마치면서

□ 본 특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학살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상을 밝혀내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특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기록 및 보존 자료가 없어 국방부.육군본부 등 중앙단위 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조사의 정확을 기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증언 등에 의존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살실태의 개황을 정리하는 정도의 조사활동에 만족해야 하였음.

□ 따라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작업은 역사바로세우기 및 현대사 조명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등 주체가 누가 되든지 기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조명 되기를 기대함.

### □ 첫째, 피해 상황의 정확한 조사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해방이후 6. 25전쟁을 전후하여 우리가 겪은 피해실태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터부시하고 또 피해신고 자체를 꺼려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정확한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조사하여 기록정리하고 후세의 교육자료 내지는 역사의 사실로 전승보전 하여야 할것임.

### □ 둘째, 피해자및 유족의 명예회복임.

학살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은 지금까지 원한과 통분을 삼키면서 살아 오고 있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세대에 국민총화 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정부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 조치가 필요함을 제언함.

## 10. 증언내용

### # 전남 화순 도장리 마을회관 방안

남1: 못 나오게 딱. 캄캄한 때라.

캄캄한 데 들어와 갓고는 제일 안 보이는 데다 딱 숨겨놓고 그랬는다, 못 있고 나와 갓고 죽어버렸어.

남2: 하도 나오라고 소리치고 다니니까.

김희철: 그 부대가 장소위 부대라는 부대...?

이장: 부대는 우리가 모르죠? 부대이름은 모르고 대한민국 국군은 분명하고.

(양정렬 화순군의회 특별위원: 탄데 조사해 보면 장소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김희철: 장소위 부대, 11사단.